

차오

미래의 희망 로스쿨

LawsCHOOL

2016. JUL + AUG



07/08



- 강원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희대학교
- 고려대학교
- 동아대학교
- 부산대학교
- 세경대학교
- 서울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아주대학교
- 연세대학교
- 영남대학교
- 원광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인하대학교
- 전남대학교
- 전북대학교
- 제주대학교
- CNU 중앙대학교
- 송남대학교
- 충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 몇 세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

LawSCHOOL **창**

미래의 희망 로스쿨

2016

07 + 08



발행일 2016년 7월
등록번호 2289-0262
발행인 이형규 이사장
편집·진행 김명기 국장, 박소희 주임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디자이너 편집회사 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인쇄 삼화인쇄(주)

표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서는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showe@leet.or.kr

- 04 **로스쿨 탐방**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형규 원장
- 08 **파워인터뷰**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
- 12 **행복로스쿨**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하연지
- 14 **명예기자 3기 소개**
- 16 **로스쿨 오피니언**
- 18 **SPECIAL REPORT**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최종 의견
- 24 **일문일답**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고지운 변호사
- 28 **특별기고**
삼성전자 광한 변호사
세브란스 병원 박다래 변호사
- 32 **로스쿨 핫이슈**
- 34 **로스쿨 특파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양승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허창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남기엽
- 44 **언론 속 로스쿨**
- 48 **LAW ICON**
- 52 **그림 읽어주는 변호사 / 책 읽어주는 변호사**
- 60 **툰아보기 / 문화가 산책**
- 64 **협의회 소식**
- 66 **OUT CAMPUS / LAW 낱말퀴즈**

지난 5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정기총회를 개최해 제7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선출했다. 25개교 법전원장의 만장일치로 선출된 이형규(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사장을 찾아,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재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형규 이사장의 목소리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 겪고 있는 안팎의 시련을 끝내고 새로이 도약하고자 하는 결의가 묻어났다. editor. 박소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형규 원장**

“로스쿨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



약력

한양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Goettingen대학교 법학박사
現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現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現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
前 한양대학교 교무처장
前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前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Q. 지금까지 법학교수로서의 활동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¹⁾ 이사장 취임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A. 저는 1990년에 한양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독일 괴팅엔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1990년도부터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전원에서 교수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부터는 법전원장 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사법시험준치 여부 논란과 함께 로스쿨 제도에 대한 여

러 가지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제가 법전협 이사장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로스쿨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신임 이사장으로서 계획 중인 법전협의 운영·발전 방향은 무엇인가요?

A. 앞으로 저는 법전협 이사장으로서 우선 로스쿨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입학전형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입학전형제도는 '객관적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인정받는 전형기준'인데,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25개교 법전원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및 운영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전협이 주관·시행하고 있는 법학적성시험이 법학을 공부하는데 실제로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시험이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제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시행된 법학적성시험은 로스쿨에 입학하여 법학을 전공하는 데 상관관계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임 교수님 이사장께서도 법학적성시험제도가 법학공부에 관한 실질적인 적성을 평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임 이사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적성시험이 법학공부와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는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되지 않으면 사법시험에서 나타났던 고시낭인과 마찬가지로 변시낭인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격시험화와 관련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Q. 이사장님께서 독일 유학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독일에서의 생활은 어떠셨나요?

A. 독일에서 유학을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82년 당시에 독일 프라이브르크대학에서 연구 중이셨던 은사이신 故이병태 교수님께서 '교수가 되려면 독일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된 동기는 19세기 후반에 독일법을 계수한 일본이 한일합방 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법을 시행하였고, 1948년 정부수립 후에도 우리나라의 법률들은 대부분 종래의 일본법을 모델로 하



여 입법되었습니다. 따라서 독일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 법에 대한 이론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그동안 변경 또는 발전된 독일법과 그 법리를 통하여 우리나라 법률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독일의 회사법 및 독금법의 대가이신 괴팅엔대학교 이멩가(Ulrich Immenga) 교수님의 지도 아래 박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박사과정을 밟으며 이멩가교수님의 도움으로 독일의 유명한 비교법잡지에 논문을 발표할 수 있었고, 조교로 일하였으며,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습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유학생 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인연으로 현

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09년에 설립되었으며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이다. 법전협은 로스쿨 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자율적 협의·조정을 통하여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률가 양성제도의 발전을 모색하여 우수한 법률가 양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 괴팅엔대학교 한국동문회 회장과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 한국장학생회 회장 직을 맡고 있습니다.

Q.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교무처장을 비롯하여 학회장 및 각종 고시출제위원 등을 두루 역임하셨는데, 이러한 직책에 임하는 자세나 신념이 있으신지요?

A. '항상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꼭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으며, '인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항상 제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이해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남을 위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무처장 등 보직을 맡았을 때에도 이러한 마음으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Q. 한국상사법학회장과 한국비교사법학회장을 역임하셨는데, 이들 학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A. 제가 2014년에 회장을 역임한 한국상사법학회는 상법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학자 및 상법에 관심을 가진 판사, 변호사 등 실무가들이 회원인 "상법" 분야의 메인 학회입니다. 이 학회는 상법의 연구뿐만 아니라 기업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인 상법을 개정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가 2012년에 회장을 역임한 비교사법학회는 주로 민법과 상법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학자 및 민법과 상법에 관심을 가진 판사, 변호사 등 실무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사법(私法)에 관한 이론 및 비교연구를 하는 대규모 학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로스쿨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A.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입시에서는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일정한 비율 이상의 무적으로 선발하여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과거 사법시험제도 보다 현재의 로스쿨제도에서 훨씬 더 용이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로스쿨의 풍부한 장학제도에 의하여 학부보다 더 높은 비율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지 않더라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사법시험의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법시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법시험에서는 응시자 중 고작 3% 미만이 합격하고, 나머지 97%는 사다리 밑에 낙오자가 되었습니다. 오직 3%만을 위하여 수많은 낙오자

를 양산하는 제도가 어떻게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습니까? 더구나 합격률이 3% 미만인 사법시험에서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이 장기간 공부하고 합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981년부터 2014년까지 사시 합격자 중 고졸자(중퇴, 퇴학 포함)는 19명에 불과하여 전체의 0.1%에 불과합니다. 사법시험의 폐해는 장기간 시험 준비로 인하여 이른바 수많은 '고시낭인'이 발생하고,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전공에 관계없이 사법시험에 매달림으로써 학부교육의 파행화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에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변호사시험법에서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2009년 법 제정 시에 사시 폐지로 인하여 피해를 볼 수 있는 수험생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8년이라는 장기간의 유예기간까지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법시험을 존치시킨다면 로스쿨학생들에게 커다란 혼란을 줄 것이며,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Q. 법학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저는 학생들에게도 중용지도를 강조합니다. 법률을 만들거나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상식적으로 통할 수 있는 입법과 법 적용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법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법조인으로서 활동할 때에도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꿈(목표)을 가지고 생활하라고 자주 말합니다. 꿈이 있어야 희망도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누구나 '최상'이 되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너무 큰 것을 한번에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의 분수에 맞게 단계별로 추진하거나 차선을 택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너무 자신의 이해관계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남을 위한 일에도 최선을 다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Q. 향후 이사장님의 개인적인 목표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저는 앞으로도 제가 해야 할 일에 항상 충실하고자 합니다. 우선 교수로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법전원 원장으로서 우리 로스쿨의 위상을 국내·외적으로 드높일 수 있도록 굳건한 기반을 조성하며, 법전협 이사장으로서 국민들이 로스쿨제도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입학전형 및 성적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변호사를 꿈꾸는 로스쿨 준비생에게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A. 변호사가 되고자 하면 우선 법학에 자신이 적성이 맞는지의 여부를 알



아야 합니다. 민법총칙이나 형법총론 등 기초적인 법학과목을 수강해 보면 법학에 자신의 적성이 맞는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조인이 좋은 직업이지만, 요즘 언론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금수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개천에서 나온 '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조인은 하나의 전문직업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해야 합니다.

법학에 적성이 맞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1단계에서 학부성적, 영어, 법학적성시험(LEET) 및 서류평가 등을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과 논술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대학의 학부성과 관련하여 자기 전공의 주요 교과목을 충실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서류평가에서는 정규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언어와 추리논증 등 법학적성시험도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영어는 토익과 토플, 토플 등의 공인영어성적에 의하는데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LEET는 단시간에 공부를 한다고 해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꾸준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본환 대표에게는 따뜻한 세상을 꿈꾸는 청년의 눈빛이 있다. 반듯한 성품과 서글픈 인상, 젊음이다운 패기와 열정으로 가득 찬 그는 주목 받는 사업가다. 법률서비스의 대중화와 선진화를 이뤄나가는 IT기업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를 만나 야심찬 포부를 들어봤다.

editor. 박소희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연세대 로스쿨 출신)

동념을 타파하는 젊은 사업가, 법률테크로 세상을 이롭게 하다



Law & Company

지는 게임은 하지 않는다

김본환 대표의 어린 시절 꿈은 법관이었다. 그러나 대입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지는 게임은 하지 않는다'는 그만의 인생 철학을 바탕으로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

"가고 싶었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어요. 대입도 법관이 되기 위한 과정의 일부인데, 시작부터 진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이 무엇일까 고민했고, 그때부터 입시교육컨설팅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김 대표는 타인이 만들어놓은 룰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기 보다는, 사업을 통해 자신만의 룰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첫 번째 사업을 하면서 업무 차 미국 출장길에 올랐을 때, 지인을 통해 한국에도 로스쿨이 도입된다는 사실을 듣게 된다. 점차 법조인의 길과 멀어지고 있던 그는, 경력을 살리면서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 로스쿨에 진학하게 된다.

하지만 로스쿨에 입학한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법조시장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였다. 지난 100여 년 동안 1만 명 선에 머무르던 법조인의 수는 로스쿨의 도입으로 급증 추세를



로앤컴퍼니 공동창업자 4인 : 좌측부터 이휘진 이사, 정재성 이사, 여인한 이사, 김본환 대표

보였으며, 한미 FTA 타결로 인한 법률시장 개방, 대법원의 전자소송 진행 등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학시절부터 사업을 해서 그런지 몸 속 DNA가 많이 바뀌었나 봐요.(웃음) 전에는 세상을 사회학적 혹은 인문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면,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는 비즈니스적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로스쿨에 입학해 보니 패러다임의 전환이 눈에 보였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로스쿨에 입학할 때부터 자격증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자 했던 것이지, 변호사를 직업으로 삼겠다는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선배 변호사들이 법조 시장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변호사가 된다고 해서 이 시장에서 행복하게 플레이할 수 있을까?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에 조금이나마 일조하면서, 긍정적인 변화에 힘이 되는 시장적 접근을 선택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스스로에게 물어본 결과 대답은 '시장적 접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의 사업을 바로 시작했죠."

김본환 대표는 세 명(이휘진, 정재성, 여인한)의 공동 창업자들과 함께 '로앤컴퍼니(Law&Company)'를 설립했다. 이휘진 이사는 김 대표와 초·중·고 시절을 보낸 막역한 친구이고, 정재성 이사는 대학 시절 경영전략학회를 함께 했었다. 여인한 이사는 김 대표의 로스쿨 재학시절 동기의 남편이다. 공동 창업자들 이외에도 연대로스쿨 선배인 이상후 전 CTO는 법무관 입대 전까지 개발을 맡아 수행하였고, 로앤비의 전 대표이사이자 법무법인 태평양 출신의 안기순 이사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는 든든한 조력자이다.

"흔히 창업을 할 때 아이템, 자본, 팀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본은 아이디어랑 팀이 홀

렸하면 따라오고, 아이디어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결국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팀이 가장 중요한 거죠."

로앤컴퍼니,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로톡'을 개발하다

쉽지 않더라도 세상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아이디어를 실현해내고야 마는 끈기를 가진 멤버들로 구성된 로앤컴퍼니. 2014년 로앤컴퍼니에서는 IT와 법률서비스를





결합한 '로톡'을 출시했다. 처음에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1:1 채팅을 하는 소통의 기능을 갖춘 플랫폼이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원했고, 의뢰인들은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더 알고자 했다.

무엇보다 로앤컴퍼니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변호사를 선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전문성'과 '비용 정보'였다. 김 대표와 동료들은 의뢰인들이 원하는 이 두 가지 정보를 모두 담은 '변호사 찾기' 서비스를 로톡에 추가했다. 로톡 메인화면에서 '변호사 찾기'를 누르면 이혼, 개인회생/파산, 재산범죄 등 50가지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변호사를 찾을 수 있으며, 이들의 정보와 서비스 요금, 소송의 선임료 수준 등도 함께 볼 수 있다. 현재 로톡에 등록된 500여 명의 변호사에 대한 정보는 100% 공개되어 있다.

“단돈 몇 만 원짜리 제품을 살 때에도 소비자들은 가격비교를 하잖아요. 특히 법률서비스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을 다루는 서비스이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비싼 서비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어느 법률시장에서도 변호사의 비용 정보를 공개해 놓은 곳이 없어서,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변호사도 본인의 서비스 비용과 선임료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변호사 찾기서비스인 '좋은변호사' 서비스를 추가하였습니다.”

이후 로앤컴퍼니는 의뢰인들이 공개적으로 질문을 올리면 변호사들로부터 48시간 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공개상담' 서비스도 추가했다. 또 그

공개상담 사례를 활용해 카드형 콘텐츠로 제작한 후, 블로그와 페이스북 같은 SNS에 업로드 해서 변호사들의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법률문제가 생기면 로톡!

“로톡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법률 서비스로부터 소외됐던 사람들도 쉽고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정보 비대칭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의뢰인들의 소망이 이루어진 거죠! 또 기존에 오프라인의 전유물이라고만 여겨졌던 법률서비스 거래가 온라인으로 옮겨왔다는 것도 법률시장에 나타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그동안 변호사들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포털사이트를 통해 키워드 마케팅을 실시했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된 것도 의미 있는 변화죠.”

'로톡'은 현재 의뢰인과 변호사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월 방문자수가 12만 명

을 돌파했을 만큼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법률서비스 시장의 선진화와 대중화에 일조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김 대표를 포함한 4명의 공동 창업자로 시작한 회사는 어느덧 15명의 직원과 3명의 인턴 사원이 근무하는 공간으로 확장됐다. 로앤컴퍼니의 가장 큰 힘은 무엇인지 묻자, 김 대표는 주저하지 않고 답한다.

“가장 큰 힘이 되기보다는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더 적절한 표현 같아요. 생각보다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변호사법 때문에 보통의 고민으로는 합법적인 수익화가 어려워요. 또 변호사 집단이 가장 보수적이면서도 IT에 늦게 적응하는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의 특성 등을 감안했을 때도 어려운 시장이고요. 그동안 이런 서비스가 국내에 없었다는 것 자체가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죠. 저희 회사의 원동력은 변화하는 법률시장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의식, 그리고 그 목표를 함께 실현시켜나가는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로앤컴퍼니에서는 '15분 전화상담 솔루션' 서비스를 출시했다. 로톡에 등록된 변호사 중 원하는 분야의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은 시간을 선택하면,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이다. 변호사는 상담을 시작하기 전 의뢰인이 작성한 상담 받을 내용 및 질문을 확인하므로, 의뢰인은 15분 동안 밀도 높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5분 전화상담 솔루션' 서비스처럼 로앤컴퍼니는 앞으로도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김본환 대표의 따뜻한 말 한마디

- 카메라의 각도와 배율을 조절하는 '줌'과 '앵글'처럼, 로스쿨 생활 이후의 목표에 대해 담금질을 많이 해봐야 한다. 로스쿨은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곳이지 직업을 확정해주는 곳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 입학과 동시에 직업이 확정됐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로스쿨 입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아무것도 담보해주지 않는다.
- 대부분의 학생들은 변호사가 되어 로펌, 검찰 등 어디에서 플레이를 할지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하지만 보다 줌을 크게 해서, '내가 이 시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그러한 과정 없이 '로스쿨 졸업=변호사'를 당연하게

66

'법률문제가 생기면 로톡'이라는 공식을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조금씩 외연을 확장시키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조금은 더 이로워지지 않을까요? 99

또한 변호사들에게 IT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주면서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자리 매김할 것이다.

“법률문제가 생기면 로톡'이라는 공식을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조금씩 외연을 확장시키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조금은 더 이로워지지 않을까요?(웃음)” **창**

생각하는 것은 본인의 인생에 책임지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 언젠가 '젊은이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은 평범함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로스쿨 학생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로부터 탈피해서 자유롭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중앙대학교 로스쿨 7기의 막내. 아직 대학생 티를 벗지 못한 앳된 얼굴과 다르게 하연지 학생은 1년 내내 수석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고, 가인법정변론대회 최우수상까지 거머쥐었다. 어디에서 그런 저력이 나오는 것인지 묻자, 그녀는 해맑은 얼굴로 답한다. “어린 시절부터 법조인이 꿈이었어요. 지금은 꿈을 향해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니까, 공부하는 순간도 즐거워요!” editor. 박소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하연지

초심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법조인이 될 거예요.



사실 갓 입학했을 때에는 혼자뿐만 아니라 판례, 기본서 등 모든 것이 낯설었다. 밑줄을 치면서 기본서를 읽어 가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서 무작정 읽은 기억이 난다.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수업 후 필기 내용과 판례, 기본서를 확인한 후에야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됐다.

Q 올해 초 개최된 제7회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소감이 어떤가?

A 팀원 모두 1학년이라 큰 기대를 안했는데, 수상하게 돼서 기뻐다. 소장 이랑 청구취지 등을 써야 하는데, 당시에는 서면 작성법을 배우지 않아서 형식과 용어를 몰랐다. 교수님께 찾아갔더니 감사하게도 많은 도움을 주셨다.

Q 상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아마도 다른 팀이 안 했던 주장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본선 문제가 교수, 변호사 등 소위 말하는 공인들의 출신대학, 경력, 사진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유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원피고 측의 변론을 하는 것이었다. 우리팀은 ‘빅데이터’라는 개념을 활용했다. 빅데이터는 단순히 큰 정보, 대량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새로운 정보, 새로운 재화를 의미한다. 수십만 명의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 경우 민법 제259조 단서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

Q 법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많이 험했을 것 같다. 어떻게 극복했나?

A 처음에는 책의 목차조차 읽지 못했다. 네이버에 그림을 그려서 한자의 음과 뜻을 찾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모르는 한자를 다 찾았을 정도다.(웃음) 법전을 읽는데 한자가 너무 많아서 처음에는 힘들었다. 다행히 요즘 기본서들은 한글과 한자가 병기되어 있고, 또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유로 한다’는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정보의 원소유자보다 가공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는 것이 맞다는 논리를 폈다. 판사님들께서도 그것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 재미있다고 말씀해주셨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위법행위, 개인정보보호법 등 원론적인 내용보다는 그동안 잘 주목받지 못하던 ‘가공’이라는 민법 조문을 활용해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

Q 학부 시절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1학년 두 학기 모두 수석을 차지했다. 훌륭한 성적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A 수능 만점자들의 단골 멘트인 ‘교과서만 봤어요’를 내가 말하게 될 줄 몰랐다.(웃음) 나 역시 기본서를 교과서 삼아서 봤는데, 아무래도 ‘기본에 충실했던 것’이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인 것 같다.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법원 판례만 보고 넘어가는데, 나는 사실관계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이해가 가지 않으면, 사실심까지 찾아봤다. 마지막으로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손으로 많이 쓰려고 노력했고, 판례, 기본서, 교수님 필기를 모아서 나만의 노트를 만든 것이 큰 도움이 됐다.

Q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

A 낙천적인 성격이라 공부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아, 물론 아예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덜하다. 다만 고등학교 이후로 이렇게 오랜 시간 사람들과 붙어있던 적이 없어서 인간관계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다. 학부의 경우 졸업하면 서로 안 보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로스쿨은 정말 좁은 사회라서 졸업해도 다 보게 된다. 다른 학교 로스쿨 학생들도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이여서 종종 놀란다.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매일매일 깨닫고 있다.

Q 법조인의 꿈은 언제부터 키웠나?

A 중학생 때였다. 유명철 사건이 터지면서 ‘연쇄살인’, ‘사이코패스’ 등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어떻게 하면 범죄자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지 고민하다가, 어린마음에 떠오른 것이 ‘검찰’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검찰보다는 프로파일러랑 더 가까운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프로파일러보다는 수사 단계부터 형 집행까지 할 수 있는 검찰에 더 끌렸다.

또 로스쿨 입학 후에 경찰 실무수업을 들었는데, 수업을 통해서 꿈이 더욱 확고해졌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범죄 현장을 영상으로 보여주셨는데, 미드 CSI의 한 장면처럼 시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웃음) 아무래도 성향이 검찰 분야와 잘 맞는 듯 싶다.

Q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가?

A 초심을 잃지 않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 솔직히 이상적인 사람은 아니라서 언제까지 ‘초심’일지는 잘 모르겠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비리도 많고, 사회적 시각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일단 도전해보고 나와 맞지 않는다면, 그때 새롭게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

사회에 부딪히고 깨지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책에서 배운 이상을 실현하고, 신임의 패기와 초심이 최대한 오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 **창**

하연지 학생이 살짝쿵 공개하는 법전원 합격 노하우!

리트, 많이 풀려고 하지 말고 정답률을 높여야 추리영역의 경우에는 1-2월 달에만 학원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그때가 딱 이론 강의를 하는 시기인데, 추리영역이 낯선 학생들의 경우 들어두는 것이 좋다. 리트는 많이 풀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풀되 정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언어이해는 혼자서 공부해도, 문제 유형에만 익숙해지면 능숙하게 풀 수 있는 스킬이 생긴다. 스터디팀원들과 시간을 정해놓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를 풀 이후에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문제에 대해 설명해보라. ‘이 보기는 지문 중에 어떤 부분을 뜻하는 것이므로, 지문 안에 답이 있다’ 등 문제 해석을 하며 보기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원하는 점수가 나올 것이다.

첨삭에 첨삭을 거듭해야 하는 자기소개서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도 자기소개서를 보여주고 첨삭을 부탁해보자. 타인의 시선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자소서를 써야 할지 감이 잡힐 것이다.

<로스쿨 창> 명예기자 3기를 소개합니다!

#명예기자 #벌써3기 #어마무시한경쟁률 #최종5인 #소미더글발 #원고주세요 #SWAG를 보여줘



김지영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모두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정직하게 자신을 마주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로스쿨 입시부터 인턴 지원까지,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솔하게 많은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로스쿨 창>의 명예기자로 선발되어 자신을 소개해달라는 자리에서도 어김없이 내가 겪은 경험의 의미와 교훈, 당찬 포부를 적어 내려 가다가 멈추고 지금의 나에게 솔직해져 보았습니다.

로스쿨에 들어온 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루하루의 수업을 따라가기가 버거워 정신이 없었던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4개월이 아니라 앞으로의 로스쿨 생활 3년 내내 걱정과 불안에 시달릴 것 같아 더욱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것도 사실입니다. <로스쿨 창>은 그런 설렘 중 하나입니다. '창(窓)'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캠퍼스를 자랑하는 경희에서 인사드리는 박성민입니다. 낯설었던 법 공부가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 벌써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났습니다. 왜 나의 학습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나 많은 자책이 들었던 지난 3학기 간이었지만 30대에 다시 마주하게 된 캠퍼스 생활은 즐거움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인권, 공익분야로 약간의 외부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학내소식에 국한하지 않고 학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우리 로스쿨 생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사회문제 해결과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로스쿨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로스쿨 창'을 통해 알리고, 세간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잃은 것이 무엇인지조차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기에, 어려운 공부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말자는 각오에서 운동주의 시구로 인사말을 대신합니다.

한동안 할 일이 없을 줄 알았던 자기소개를 이렇게 다시 해봅니다. 저는 올해 서른이 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변지혜라고 합니다. 올해 입학하고 정신없이 한 학기를 보내는 중입니다. 사실 큰 목표를 가지고 명예기자에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아는 동생을 통해 전해 듣고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정보가 부족하면 유언비어가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에 대한 좋지 못한 시선 또한 로스쿨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하기 힘들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의 활동이 조금이나마 로스쿨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글 솜씨지만 로스쿨에 대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알려 주고,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1학년이라 학교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입니다만, 이러한 저의 적응과정을 보여드리는 것이 앞으로 로스쿨을 지원하려는 수험생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로스쿨 진학 전에는 자연 계열 분야의 공부를 해 오면서 로스쿨에까지 진학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법학적성검사(LEET)와 면접을 보고 이곳에서 첫 1년을 보내면서 처음 해보는 법 공부에 시행착오도 겪고 있지만 함께 공부하는 좋은 사람들 틈에서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연 계열 분야의 공부를 계속 해 왔지만 언어가 가진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학창시절과 학부 재학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참여 중인 저널리즘 관련 활동에 다시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연합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간행물 제작에 참여한다는 점이 저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로스쿨 창(窓)을 읽어보고 로스쿨 내외의 법조계 소식은 물론 책과 그림, 영화를 포함한 문화적 측면까지 넘나드는 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이력을 가진 편집자 분들의 기사를 다룬다는 점에 강하게 매료되어 명예기자 지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3기 명예기자로 선발된 만큼 편집부 및 기자분들로부터 열심히 배우면서 기사 작성과 편집 활동 참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많은 자기소개서를 쓰지만 아직도 저는 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혹자는 자기 자신이 모르면 누가 너를 알겠느냐 하지만 저 자신에게 스스로를 가장 모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바둑도 이를 직접 두는 사람보다 훈수를 두는 사람이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조언을 얻기 위해 주변에 물어보아도 딱히 통일된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저는 상황마다 다른 모습을 보이거나 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것 역시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저 자신이 로스쿨 명예기자 활동을 하며 또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창



변지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엄유정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현지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전관이 받아야 할 진정한 예우



김세정 변호사
런던 GRM Law 변호사

사법시험을 유지하지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따라서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사법시험은 폐지될 것이다. 사법시험 출신자로서 이 시험의 폐지에 대해 복합적인 감정이 들 수밖에 없다. 이게 어떻게 공부해서 붙은 시험인데, 이제 그 시험이 아예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어쩐지 스스로는 고생 많이 한 며느리인데 아들은 없는 처지처럼 느껴지면서 약간 억울하기조차 하다. 그러나 내가 고생했다고 하여 남도 고생하라는 건 부당하지 않나. 더구나 그 고생이 그다지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라면 말이다.

사법시험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자격증 시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시험을 통해 소수 인원만 선발하고, 합격자들을 국가가 나서서 교육시킨 다음 일부는 법관이나 검사로 임용하고, 나머지도 특권층의 지위를 폐쇄적으로 향유하도록 하는 방식은 매우 독특하고 적어도 서구에서는 유사한 방식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소수정예 시대의 사법시험하에서 엘리트로 성장하는 정석을 거칠게 보자면 이리했다. 초·중·고 시절 열심히 공부해 명문대 법대에 간다.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시험 준비를 시작해 가능한 한 이른 나이에 붙는다. 어리면 어릴수록, 즉 소위 소년등과를 하면 더 좋다. 연수원에 들어가 또 죽어라 공부에 매진한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판사·검사·변호사가 된다. 남자는 군대도 법무관으로 간다. 즉 외부 사회와는 섞일 틈이 없는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된다. 한 기수의 인원이 적던 시절의 관계가 훨씬 더 끈끈하지만 정원이 많아진 이후에도 소속감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여기에 법관이나 검사로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다면 서로 느끼는 유대감 혹은 친근감은 더 강하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판사나 검사를 하다가 사직하고 변호사로 나설 수 있으니 구조적으로 전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영국인들에게 이런 한국식 법조인 선발 제도와 법조의 구조 및 문화를 이해시키기란 쉽지 않다. 그저 나는 한국의 변호사 시험은 엄청나게 어려웠다고 말한다. 간혹 흥미를 보이면 설명을 시도하기도 한다. 아침부터 밤까지 수년씩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따로 모여 사는 동네가 있고, 이 사람들이 모여 잠만 자는 건물과 공부만 하는 건물이 있는데, 또한 이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전문적인 식당이 존재한다고, 하물며 특유의 복장까지 있다고 말이다. 아주 예전에는 머리와 눈썹까지 밀고 산속에 틀어박히기도 했고, 심지어는 시험에 거듭 실패한 나머지 스스

66

특권의식, 즉 일찍 어려운 시험에 붙었으니 판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사회적 대접을 받다가 이후 어느 시점에 변호사로 변신해 경제적으로도 보상받아야겠다는 기대가 사라져야 전관예우라는 말도 없어질 것이다. 99

로 목숨을 끊는 사람조차 있다고. 듣는 영국인들은 정말이지 매우 놀라지만 이걸 어디까지 믿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영어로 하다 보면 나에게도 기이한 느낌이 든다. 이걸 좀 무협지에 등장하는 무공훈련 같지 않나. 철사장(鐵砂掌)이라거나 금강불괴(金剛不壞)를 만드는 과정 같은 것 말이다. 영국인들은 자격증 시험이 뭐 그렇게 어려울 필요가 있는냐고 지적한다. 중요한 것은 자격증 자체를 따는 것이 아니라 이후 전문가로서 구실하기 위한 훈련을 얼마나 잘 받고 얼마나 풍부한 경험을 쌓았느냐는 것이라고 말이다.

사실 영국인들에게 더욱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전관예우다. 영국에서는 경력이 풍부하고 신망이 두터운 변호사들이 판사가 된다. 일단 판사가 되면 변호사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를 금지하는 법이나 규정은 없지만 문화가 그렇다. 일전에 은퇴한 판사가 다시 변호사 개업을 시도했으나 명예를 지키지 못한다는 암묵적인 비난 때문에 포기한 적도 있다. 말하자면 영국에는 전관이 없다. 전관이 없으니 당연히 전관예우도 없다. 물론 한국의 경우도 전관이라고 해서 특별히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들 주장한다. 주로 법조인들이 말이다. 하지만 재판을 진행하면서 예전 동료의 체면 구기지 않을 정도의 배려를 하겠지라는 기대만으로도 불안한 상태인 일반인들의 마음을 흔들기는 충분하다. 당장 합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입료를 받은 전직 판사와 검사의 이야기로 세상이 떠들썩한 참이지 않나.

예정대로라면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이 사법시험을 대체할 것이다. 새 제도를 도입하며 기대했던 바는 지나치게 어려운 시험에 매달리며 젊음을 탕진하는 일을 없애고, 나아가 전관예우의 토양이 되는 특유의 폐쇄적인 법조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늘 그렇듯 제도가 변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어찌면 매우 당연하게 여기던 특권의식, 즉 일찍 어려운 시험에 붙었으니 판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사회적 대접을 받다가 이후 어느 시점에 변호사로 변신해 경제적으로도 보상받아야겠다는 기대가 사라져야 전관예우라는 말도 없어질 것이다. 영국의 법관들은 물러난 이후 충분한 '예우'를 받는다. 사회적 존경이라는 예우를 말이다. **창**

출처 : 중앙일보 2016-05-20

2015년은 사법시험 존치 논란과 관련해 많은 이슈가 있었던 해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임위 내에 '법조인 양성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사법시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했다. 아래는 사법시험 폐지 입장을 가진 오수근 위원장과 한인섭 자문위원의 최종 의견서이다. 제공.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최종 의견



위원장 오수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2015.7-2016.5)

1 자문위원회는 사시존치론의 근거를 검증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이번 설치 운영된 자문위원회는 처음으로 사시존폐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하는 이들과 법무부, 교육부 그리고 법원행정처의 고위 담당자가 한 자리에서 주장의 당부를 따져보는 자리였습니다.
- 이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수 년간 사시존치 주장은 그 근거나 논리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여론조성을 위한 선전의 양상을 띠었습니다. 이번 자문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선전과 사실을 구분하여 걸러냄으로써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 사법시험 존치 여부는 법조인 양성제도의 틀 속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법조인 양성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는 이번 설치 운영된 자문위원회와 같은 협의체가 구성되어 분명한 논거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입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법전원의 문제점이 사법시험 존치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대한 비난에서 출발합니다.
- 그 비난의 당부는 차치하고라도 법전원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지 사법시험이 존치된다고 법전원의 문제점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3 사법시험은 그 폐해가 심해서 폐지된 제도입니다.

- 사법시험은 다음과 같이 그 폐해가 심하여 폐지되었습니다.
 - 한번의 필기시험으로는 역량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없습니다. 우수한 인재가 사법시험을 통해서 법률가가 되었는데 지난 해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의 무억 역조는 약 1조 1천억원(10억달러)를 넘었습니다.
 -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점은 전공을 불문하고 학부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공부를 제쳐두고 사법시험에 매달리게 하여 학부교육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이러한 폐해가 재현될 것이 분명합니다.

4 사법시험의 폐지는 국민에 대한 엄중한 약속입니다.

- 사법시험은 1995년부터 2008년까지 13년 동안의 논의 끝에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 사법시험은 2008년(법과대학이 폐지되기 전 마지막 입학) 입학한 학생에게 10년의 응시기회를 주고 폐지되는 것입니다.
- 수 많은 국민이 국가가 10년 전에 한 약속을 믿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국가가 법을 신뢰한 국민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5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법조사회는 완전히 양분되어 대립과 갈등이 계속됩니다.

- 사법시험 존폐에 대한 논란 속에서 사법시험 출신 법률가와 법전원 출신 법률가들은 상호 극심한 대립을 보였습니다.
-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이러한 대립구도는 고착될 것이고 분열된 법조사회로 인해 국민은 사법제도 자체를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6 사법시험은 결코 취약계층에게 열려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 사법시험은 형식상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 사법시험 응시자격은 대학과정에서 법학과목을 35학점 이상 이수하고 영어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 부여됩니다. 따라서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사법시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예는 없습니다.
- 사법시험은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사람만 준비할 수 있고 시험 준비에는 학원비와 교재비 등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더욱이 합격할 확률이 3%에 못 미치고, 합격생의 경우 평균 소요기간이 5년 가까이 되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성공 가능성이 낮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사법시험에 경제적인 취약계층은 사실상 도전할 수 없습니다.
-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기회라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고 시험을 더 잘 보는 학생이 합격하게 됩니다.
-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기회를 주고자 한다면 문호를 개방하는 것으로는 효과가 없고 직접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합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특별전형을 통해서 법전원에 입학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 214명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누구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사법시험에서 합격한 예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7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오픈 로스쿨이 해답입니다.

-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오픈 로스쿨이 해답입니다.
- 한국방송통신대에 오픈 로스쿨을 설치하여 학사학위 소지자는 누구든지 입학하고, 졸업정원제로 운영하여 졸업생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게 되면 법률가가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리게 됩니다.
- 오픈로스쿨은 교육에 의한 법률가 양성이라는 대 원칙과 법전원의 문호 확대이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충족하는 제도입니다.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최종 의견

-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안과 과제에 관해



자문위원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상임대표(2014-2015)

1 로스쿨·사시 병존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률에서 정한 대로 사시는 폐지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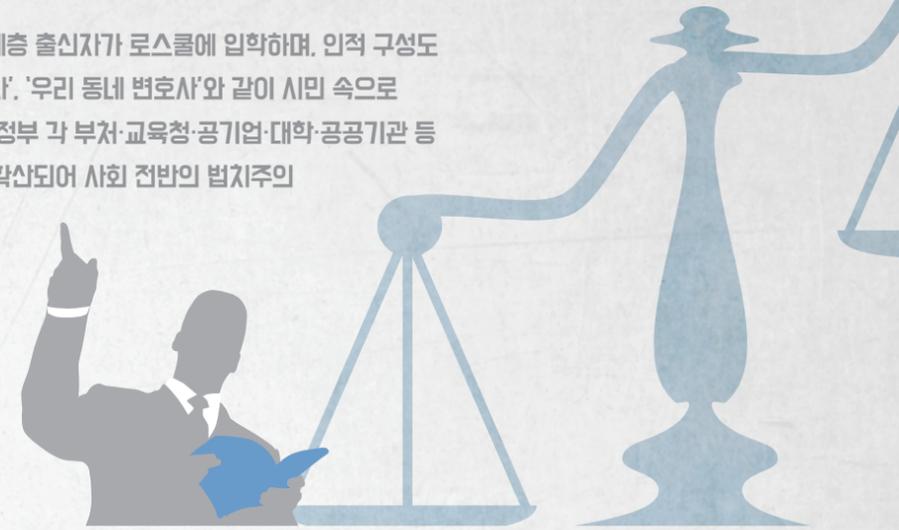
가. 사법개혁을 위한 로스쿨의 도입은 장기간의 정책검토의 산물이며, 사법시험에 대한 경과적 신뢰는 충분히 보호되었다.

- 로스쿨 도입은 13년간의 범정부차원의 논의(세추위, 사개위, 사개추위 등) 및 사회적 토론의 결과이며, 국회의 법률을 통해 완성한 것이다. 일각에서 로스쿨 도입을 '날치기'라거나 '정략적 타협의 산물'일 뿐이라고 폄훼하나, 이는 사법부-행정부-입법부-시민사회-학계가 참여한 범정부적 정책논의와 입법과정을 간과한 주장에 불과하다.
- 사시의 점진적 약화와 중국적 폐지는 10년의 과도적 이행과정을 예고한 것이다. 우리 국가정책 중에서 기존 제도로부터의 이행기간을 이토록 장기간 보호했던 예는 이제껏 없었다. 현재 사시 지원인원은 장기적으로 급감하고 있다.
- 로스쿨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사시존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최근 점차 노골화되어가는 주장들을 보면 사시존치론자 중 일부는 <사시와 로스쿨의 발전적 공존>이 아니라 <로스쿨 폐지를 통한 사시로 회귀>를 주장하기까지 한다. 이는 사법개혁의 오랜 노력을 일거에 無化시키려는 시도일 뿐이다. 사시존치론의 존재는 끝없는 갈등과 반목, 신 제도의 정착을 혼란시키게 한다. 그러한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킬 시점이라고 본다.

나. 사시존치는 단순한 <사시의 연장>이 아니라 <사법시험의 新도입>이다.

- 폐지가 법률로써 확정된 것을 법 개정의 형태로 재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사시의 연장>이 아니라 <사법시험의 新도입>과 마찬가지로, 사시로부터 로스쿨로 전환한 것은 일개 시험의 변화가 아니라, 법조양성시스템 전체의 근본적 변화이기 때문이다. 법학부 폐지, 사법연수원 폐지, 법조일원화 등 많은 부분적 변화가 그 시스템의 일부이다. 따라서 이미 폐지된 사시의 新도입을 위해서는 새로운 범국민적 논의를 장기간 거쳐야 비로소 가능할 뿐이다.
- 지난 10년에 걸쳐 사시 폐지를 확고하게 신뢰하고서 직업과 전공을 선택한 수십 만의 시민들이 있다. 대학입시와 전공선택에 있어서의 변화, 사시준비자들의 대폭적 감소가 그 예이다.

연간 120명 이상의 신체적·경제적 취약계층 출신자가 로스쿨에 입학하며, 인적 구성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며, '공익인권변호사', '우리 동네 변호사'와 같이 시민 속으로 파고드는 변호사가 늘어나고 있다. 국회·정부 각 부처·교육청·공기업·대학·공공기관 등 다양한 부문에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확산되어 사회 전반의 법치주의 진작에 이바지하고 있다.



다. 사시 부활/新도입이 다투어지면서 법조계는 갈등과 반목으로 황폐화되었고, 일부 기성법조인의 폄하와 낙인찍기로 로스쿨 출신 소장 법조인들에게 자존심의 상처를 입혔다.

- 폐지가 예정된 사시를 억지로 부활/新도입하자고 하면서 소모적 갈등이 격화되었고, 상호존중해야 할 법조계 내부는 심각하게 분열되었다.
- 일부 기성법조인들은 로스쿨 출신 법조인 및 로스쿨 학생들에 대해 객관적 근거도 없이 금수저, 음서제, 뺨, 부정입학생 등의 낙인을 찍었고, 이로 인해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자존심을 훼손시켰다. 정당한 비판의 선을 넘은 원색적 비난이 초래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기에 더욱 우려스럽다.

라. 로스쿨 도입으로 인한 새로운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 오히려 다수의 기성법조인들은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실력과 품성, 열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로스쿨 도입 초기 이른바 '반값 변호사' 운운하며 로스쿨 출신 법조인에 대해 불신하는 태도를 내비치던 주요 로펌들은 이제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실무능력에 대해 불신하기는커녕 매년 많은 수의 로스쿨 출신 법조인을 광범위하게 채용한다.
- 경쟁논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요 로펌들이 로스쿨 출신 법조인을 앞다투어 채용하는 것은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잠재력에 대한 평가를 보여준다. 누군가는 '취업청탁'과 '음서제'의 소산이라고 폄하하지만, 격화되는 법률시장 경쟁 하에서 '실력은 없지만 배경만 좋은' 허울뿐인 법조인에게 '취업자리'를 내어 줄 여유가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 법조계의 구성 자체가 변모하고 있다. 연간 120명 이상의 신체적·경제적 취약계층 출신자가 로스쿨에 입학하며, 인적 구성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며, '공익인권변호사', '우리 동네 변호사'와 같이 시민 속으로 파고드는 변호사가 늘어나고 있다. 국회·정부 각 부처·교육청·공기업·대학·공공기관 등 다양한 부문에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확산되어 사회 전반의 법치주의 진작에 이바지하고 있다.
- 뿌리 깊었던 사법연수원의 기수문화, '끼리끼리 문화'도, 25개로 나누어진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스스로를 '승천한 용'에 비유하는 사례 자체가 없다. 변호사 자격은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아닌, 전문직으로서의 제 자리를 되찾아 가고 있다.

마. 잘못된 논쟁구도는 소사회적인 역량 낭비만을 초래할 뿐이다.

- 법률로써 폐지확정된 사시를 다시 연장하려 들 경우, 엄청난 사회적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은 2015. 12. 법무부발표 이후의 사태전개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법무부조차 애초 입장을 추진할 동력을 상실하고, 하나의 의견 표명으로 후퇴하였다.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쉽게 사시연장론을 재론할 일은 아니다.
- 로스쿨의 개선·발전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때인데, <사시나 로스쿨이나> 라는 잘못된 논쟁구도로 인하여 미래지향적 정책방안 수립에 장애가 되고 있다.
-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법률을 그대로 시행하여, 로스쿨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며 국민의 기대와 신뢰이익에 부응해야 한다. 법조인양성 교육 및 제도화에서 책임 있는 기관인 교육부 및 사법부의 입장도 마찬가지라 본다.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하기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공청회(2015)에서 박성수[교육부 대학학사제도 과장]의 진술자료.)

“로스쿨과 사시가 과도기적으로 병존하는 과정에서 법조계·법학계가 두 패로 갈려 극단적으로 대립·갈등하면서 양쪽 모두 상처를 입고 사회적 불안감을 일으키고 있다. (중략) 사시와 로스쿨체제를 병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한 병존체제를 연장하거나 상시화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의 원천이며, 갈등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법원행정처 심준보 사법정책실장, 법조인양성제도개선자문위원회 회의[2016. 5. 16.]의 진술 취지.)

2 로스쿨의 투명성 및 공정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 로스쿨 도입 이후 8년간 입시와 학사운영에 있어서 공정성이 훼손된 일은 없다고 보나, 공정성 의혹을 씻고 신뢰를 보다 확고하게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대하기 위한 전향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입시과정상 오해 빚는 부분에서 보다 엄격한 규율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배했을 경우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명시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만,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명목 하에 정량평가 일변도로 하지는 것은 오히려 퇴보적인 처방이다. 이는 몇몇 우수대학의 재학생의 비율을 오히려 훨씬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별전형, 지역균형이 입시에서 法定되어 있는 것처럼, 다양한 인재선발과 공정성 확보를 조화시키기 위한 면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일률적 잣대로의 회귀가 아니라 입시의 자율성을 존중해 나가되 그 선발방안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후적으로 검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계층, 지역, 출신학교 등에서 균등성을 확장하기 위한 대학 차원의 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정기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점검받게 할 필요가 있다.
- 입시, 학점 부여 등에서 이의가 있다면 이를 신고하고 처리할 기구가 필요하다.

- 가칭 <로스쿨 공정성 심사·평가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이 센터를 독립심의기관으로 상설화하되, 법전문협회의 산하에 설치하고 교육부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3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안정화하여 예측가능한 자격시험으로 운용해야 한다.

- 현재 변시 합격률을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실제 응시인원이 누적되어 감에 따라 연도별 합격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이는 시험 자체의 문제일 뿐 아니라, 정상적인 로스쿨 교육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 그 동안 사시와의 병존으로 인하여 변시 합격률을 치밀하게 조정하지 못해 온 측면이 있다. 내년부터 사시를 통한 법조인 배출이 단절되고, 법조인 배출창구가 일원화되므로 변시 합격률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여유가 생긴다고 본다.
- 변시 합격률은 입학정원 대비가 아니라,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 75%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합격률을 유지하면 로스쿨에서 변시에 치중한 교육이 아닌 정상화된 법학교육 및 특성화 교육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나아가, <초시자 기준 상위 80% 선을 커트라인으로 정하고, 재시 이상 응시자의 경우 그 합격선에 있어 위 초시자의 커트라인을 그대로 따르게 함>으로 정한다면 질적 기준도 정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완적 고려사항으로 제안한다.

4 미래지향적 대안으로서 예비로스쿨을 방송통신교육의 방법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사시의 부활/新도입은 과거와의 단절을 불가능하게 하고 소모적 논쟁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법조직역 진출 기회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 다만, 정규 로스쿨에 다니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이들에게도 문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는 동감한다. 통신교육의 방법을 가미하여 <예비로스쿨을 겸한 방송통신 법학석사과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방송통신대에 법학석사과정을 도입하여 입학생을 선발하고 2년 간 법학교육을 실시한 후 방송통신대 석사학위를 수여하며, 상위 200명 가량에게(현행 로스쿨 전체 입학정원의 10%) 로스쿨 편입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인원의 누적을 막기 위하여 해당 학생은 총 2-3회의 로스쿨 편입신청권을 갖는 것으로 한다.
- 예비로스쿨에서 취득한 학점의 일부를 정규 로스쿨 이수학점으로 인정하고(약 45학점), 나머지 학점(약 45학점) 로스쿨 주간 혹은 야간 과정에서 수강한다. 이 편입생에 대하여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업과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충분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 이와 같은 방안의 실현을 통해 현실 여건상 정규 로스쿨에 바로 진입하기 어려운 이에게도 로스쿨 진입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면서도 사설학원이 아닌 <정규교육을 통한 법조인양성>이라는 취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 이같은 대안은 아직 거칠다. 향후 충분한 토의를 거쳐 하나의 안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서는 이를 위한 기초적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 안은 기존의 소위 <Open Law School> 안과는 다소 상이하다. ^참



이주민지원활동 5년차 공익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고지운 변호사



Q. 변호사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감동)'에서 근무하는 고지운 변호사입니다.

Q. 주로 하는 활동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저는 이주민지원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주민이라 하면, 이주근로자, 이주여성·아동, 난민 등을 말하고, 이 분들에 대하여 무료상담, 무료소송지원, 각종 신청단계에서의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시 고용노동부 진정, 산재신청 등도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Q. 이주민법률지원을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신건가요? 원래부터 이주민 전문 공익변호사로 활동할 생각이었나요?

우연한 기회에 이주민지원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기생으로서 대학원에서 의료법을 전공했는데, 졸업 후 일반 로펌에서 실무수습생으로 근무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법률봉사를 시작했어요.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봉사였는데, 주로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이 많았습니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산업재해를 당하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의료소송도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법률상담봉사를 하다가 제가 직접 의료소송을 맡게 되었는데 몇 달 후 소송 결과가 좋아서 보람도 많았고, 그러면서 이주민지원활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Q.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감동)'을 바로 설립하신건가요?

아뇨. 그렇지는 않고요. 수습기간 중 법률봉사하면서 이주민지원활동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수습기간 후 다른 이주민지원센터에서 상근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주민지원센터가 그렇듯 재정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 당분간 저에게 월급을 지급할 수 없고 상황이 나아지면 줄 수 있는데 괜찮냐 하셨어요. 저는 우선 6개월 정도는 무급으로 일할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수습기간 후 바로 이주민지원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일이 정말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었어요. 물론 제 예상과 달리 6개월 이후에도 계속 무급으로 지내는 등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 곳에서 계속 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1년 6개월 정도 지나서 센터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저와 같이 일하시던 목사님께서 일을 그만두시겠다고 하시면서 저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실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서 당시 이주민지원활동을 그만두어야 하나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Q.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을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건가요?

당시 센터를 그만두어도 이주민 분들이 계속 연락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소송을 하나 진행하게 되었는데, 내용이 '이주 노동자가 사업주가 내민 서류에 그 내용을 모르고 서명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근로계약해지 합의서여서 억울하게 강제퇴거 대상자가 된 사안'이었어요. 이 소송은 이미 행정심판에서도 각하결정이 나왔던 터라 다들 어렵다고 한 사례였는데, 제가 맡아서 소송 결과가 좋게 나왔거든요. 소송 후 이주 노동자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정말 고맙다고 하시는데, 그 때 느꼈어요. 제가 아는 작은 지식이 어느 분에게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고 절실하다는 것어요. 그래서 이주민지원활동을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Q. 그래도 이주민지원공익센터를 만들기까지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아무래도 재정적인 문제이지요. 사실 저도 처음부터 이주민지원센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무엇보다 센터를 설립하려면 사무실 공간도 있어야 하고 활동비도 지급되어야 하잖아요. 공간이나 자금 모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2014년 초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공익변호사에 대한 무료 공간 제공사업을 통해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또 사랑샘 재단 및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의 공익변호사자립지원사업을 통해 활동비도 지원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활동 공간도 생기고 활동비도 있으니 좀 더 이주민지원활동을 체계적으로 해



보고 싶은 생각에서 이주민지원공익센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법률상담은 있었지만 소송까지 무료로 진행하는 곳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2014년 3월경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감동)'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Q.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감동)' 이름이 멋진데요. 혹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별다른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랑샘재단 및 공익법재단 공감의 지원이 없었다면 제가 이주민지원활동을 할 수 없었을테니까요. 또 센터를 만들기 위해 발기인이 필요할 때에도 주위 분들이 선뜻 나서주셔서 센터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와 우리 사회의 이주민 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감사와 동행(감동)'이라고 지었어요. 사실 '감사와 동행'을 줄이면 '감동' 이잖아요. 그래서 '감동' 이주민센터라고도 짓고 싶었는데, 제가 이주민 분들께 '감동'을 드리지 못하면 어쩌나...하는 마

이주민지원기금을 좀 더 마련하여 이주여성, 아동에 대한 지원을 더욱 많이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여 이주민 분들께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주민지원활동에 관심 있으신 후배님들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 www.gamdonglove.org 를 방문해 주셔요. 언제나 환영합니다. 99

음에 그대로 앞에 '감사와 동행'이라고 붙였습니다. 하하.

Q. 센터에서는 이주 노동자, 이주여성, 아동에 대한 법률지원을 주로 하는 것이지요.

네. 이주 노동자, 이주여성 · 아동, 난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탈북자분들에 대한 상담도 들어와서 이 분들에 대한 법률지원도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보호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저도 활동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외국인보호소는 구금시설과 유사하지만 법리적으로 구금시설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여 인권 문제가 종종 제기되곤 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외국인보호소는 형사범의 수용시설인 구치소 내지 교도소와 유사해요.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수용복을 입고 철창에 갇혀 있으면서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적으로만 가능하거든요.

Q. 외국인보호소는 저도 처음 듣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3곳, 화성, 청주, 여수에 외

국인보호소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외국인 보호소에 방문했을 때에는 분명 교도소와 유사한 시설인데 - 청주 외국인보호소는 청주 교도소 안에 위치해 있어요 - 영장도 없고 구금에 대한 이의신청도 당해 상급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 또 보호소 안에 있는 이주민들은 개인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중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전화기를 통해서만 외부에 연락할 수 있거든요. 외부에서는 보호소 안에 있는 이주민에게 직접 전화할 수는 없고 보호소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하거나 팩스, 편지를 통해 연락할 수 밖에 없고요. 영화 '집으로 가는 길' 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영화와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통역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다는지,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지 하는 상황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아직 이주민관련 법제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고 또 사회적 관심도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예산 부족, 행정적 문제 등으로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않아요.

Q.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이후 중동이나 외국에 나가서 힘들게 돈을 벌어들인 적도 있는데, 현재 우리 사회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 중에는 돈을 벌어서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살려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밀입국이나 미등록 불법체류를 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하지만, 제가 돕는 분들은 대부분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다가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든지,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억울하게 - 예컨대 사업주와의 다툼 등 - 형사고소를 당했는데 통역지원이 잘 되지 않아 벌금형을 받은 경우, 산재 후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등 이거든요. 이 분들은 오히려 현행 법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고요. 또 이주 여성 · 아동 등 다문화 가정 관련하여도 이혼의 경우 아이들 양육 문제라든지, 파탄된 가정에서 아이가 크면서 겪는 어려움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주민 전반에 대한 법제도 개선이 꼭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Q. 이주민지원활동을 하면서 힘든 점도 많을 텐데요. 힘든 점과 보람 있는 점은 무엇인가요.

이주민지원활동 특성 상 급하게 달려가야 하는 상황이 종종 있거든요. 외국인보호소, 출입국 단속 및 공항 송환대기실 등에는 외부와의 연락이 쉽지 않고 이주민이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 접견을 해야 해요. 그래서 지방 출장도 많고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습니다. 또 올해에는 센터 개원한지 2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후원금을 나누어 센터 운영비로도 써야하고 또 이주민지원기금을 마련해서 이주민에게 긴급생활비나 긴급치료비 및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재정적으로도 전혀 나아지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작년에는 센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고요. 하지만, 긴급생활비나 긴급치료비를 받은 이주민 분들이나 소송을 통해 도움을 받은 이주민 분들이 고맙다며 저를 찾아오시고 과일이나 직접 만든 과자 등을 가져다 주실 때면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Q. 앞으로의 활동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겠어요.

이주민지원기금을 좀 더 마련하여 이주여성, 아동에 대한 지원을 더욱 많이 하고 싶습니다. 또 이번 4월에는 실무수습 변호사님과 외국법자문사(뉴질랜드변호사)님, 활동가를 모셔 변호사 3명과 활동가 1명의 단체가 된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여 이주민 분들께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주민 지원활동에 관심 있으신 후배님들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 www.gamdonglove.org 를 방문해 주셔요. 언제나 환영합니다. 창

고지운 변호사

학부시절부터 법률봉사에 대한 열망은 있었지만 자신이 공익전담변호사로서 활동할지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주민 관련 사건을 접하게 되면서 이주민지원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5년차 공익변호사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과 성원으로 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감사함을 담아, 공익변호사를 희망하시는 후배님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드리고 싶습니다.



새내기 변호사의 편지

삼성전자
곽한 변호사

안녕하세요, 로스쿨 학우 여러분. 저는 삼성전자 법무실 산하 IP센터라는 부서에서 특허 분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기 곽한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사업 특성상 국내에 비해 해외분쟁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며, 저 역시도 해외기업들과의 분쟁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국내 변호사 뿐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의 각국 변호사 및 변리사 등 쟁쟁한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IP센터는, 美특허법 상 디자인특허 손해배상 규정의 위헌여부를 다루고 있는 對애플 분쟁부터 표준특허로 소송을 제기한 對화웨이 분쟁까지, 회사 내 주요 IP 분쟁을 다루고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처음 기고의뢰를 받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1년 남짓한 경력의 새내기 변호사가 무슨 이야기를 풀어 갈 수 있을지 말입니다. '변호사'라는 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본 적도, 특히 외에 다른 법무에 대한 경험도 없는 제가 무슨 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변호사 자격증' 그 자체만으로 전문가로 인정받던 시대가 아님은 자명합니다. 사회는 계속해서 복잡다단해지고 분쟁의 양상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출 및 무역을 주요 먹거리로 삼는 우리 기업들이 겪는 문제는 말할 것도 없지요. 국내외를 망라한 분쟁의 양상은 예측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법률가에게 요구하는 역량도 심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저 같은 새내기 변호사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완성된 전문가가 아닌 그 과정에서 있는 변호사로서, 더 꾸밈없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6개월. 제가 IP센터 내에서 업무를 시작한 이후, 지적재산권 분야를 업으로 삼겠다는 나름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영어 등 외국어가 출중한 것도 아니었고, 로스쿨 3년 동안 영어로 대화 한번 해본 적이 없던 저에게 해외 분쟁 업무는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보였습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해외의 관련 판례들, 익숙하지 않은 각국의 사법제도들, 그림 하나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 문헌들의 홍수 속에서 꽤 진지하게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확히 말하면,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요. 이리다가 한국 변호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어 버리지 않을까, 한국변호사와 해외변호사 사이에서 어정쩡한 상태로 남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까지는, 적어도 반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조원. 제가 처음으로 주도적으로 담당할 미국 기업과의 분쟁에서 상대방이 요구한 최초 액수입니다. 지금에서야 '이 놈들, 초장부터 세계 질렸네' 하면서 가볍게 넘겨버릴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숫자가 주는 압박에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협상을 앞두고는 제가 구성한 논리와 법리에 허점이 있거나 않을까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고, 일상에서는 상사에게 어떻게 보고할지 혼나지는 않을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제 논리는 완벽하지 않았고, 상사에게 혼난 적은 셀수 없이 많았지요. 지난 시간은 그렇게 하루하루 고쳐나가고 수정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6개월. 술을 좋아하던 제가 사실상 술을 끊은 기

66

격변하는 사회와 법률시장의 혼돈 속에서, 이제 갓 세상에 발을 내딛은 초년생 변호사. 그런 새내기 변호사의 삶과 일은 그 자체로 고민과 투쟁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99

간입니다. 이제는 맹장염부터 각종 소화불량까지 전에 없던 위장 트러블이 일상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표준특허, 그중에서도 장래 특허분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신특허 업무를 맡은 이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외계어같이 느껴지던 기술 용어 및 수식, 방대한 양의 기술문서들과 씨름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지요. 지금도 책상 옆에는 법률문서보다는 공학 교과서와 기술문서들이 훨씬 더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주먹던 햄버거 등 인스턴트 식품을 피하게 된 것은 슬픈 일입니다. 업무와 기술에 익숙해지고 나면 곧 건강도 좋아지리라 기대해봅니다.

해외, 특히 미국의 지적재산권 법리는 대단히 정교하면서도 그 양이 방대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법리들이 사회의 요청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디자인 특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삼성對애플 소송,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범위를 다루는 구글對오라클 소송, 표준특허가 제기하는 반독점법 위반의 문제를 다루는 각국 법원의 재판례 등 IP 분야는 말 그대로 현재 진행중인 영역입니다. 기존 판례 법리를 따르면서도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고, 논란 중인 영역에 대해서는 시시각각 변하는 각국 법원의 재판례를 반영해야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국내외에서 다각도로 진행되는 분쟁의 유형에 따라 대응 전략을 달리 짜고, 각국 법원의 특성까지 파악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작업이지요.

이렇게 쓰고 나니 제 부족함이 조금은 당연해 보입니다. 이 모든 역량을 구비하기엔 제 경험과 지식은 짧을 수밖에 없지요. 이처럼 적은 경력의 한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약

점을 발견할 때마다 구멍을 메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 이것이 지난 시간 동안 제가 해온 일이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에 다름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이 질문에는 그 누구도 쉽게 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과정에 있는 새내기 변호사가 잘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확답하기 어렵겠지요. 아마도 이것은 스스로 질문하고, 고민하고,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저 자신만이 내릴 수 있는 평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난 1년을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잘 버텼다고.

격변하는 사회와 법률시장의 혼돈 속에서, 이제 갓 세상에 발을 내딛은 초년생 변호사. 그런 새내기 변호사의 삶과 일은 그 자체로 고민과 투쟁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주변을 돌아볼 겨를 없이, 순간순간 쏟아지는 문제들을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글을 어떤 방향으로 써야할지 고민하면서 오히려 제가 느끼고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제가 드린 이야기가 어떤 분에게는 공감을 이끌어 내고, 또 다른 분에게는 작은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 저 역시도 언젠가 이 과정의 끝에 도착했을 때, 새내기 변호사로서 썼던 이 글을 보고 빙긋이 웃음짓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곽한 변호사

한성과학고를 졸업하고 KAIST에서 물리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삼성메디슨 연구소에서 엔지니어로 다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천상 이공계 체질로 생각할만도 한데, 문과가 적성에 더 맞다고 여겨 한양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졸업 후 지적재산권 분야로 회귀 아닌 회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삼성전자 IP센터에서 국내외 특허 분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병원과 만나다.

세브란스 병원
박다래 변호사

오늘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제주도에 온 날입니다. '언론중재'라는 다소 생소한 업무를 위해 방문했지만 검사검사 예쁜 카페를 찾아 글 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침,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지요. 저는 이제 5년차의 세브란스 병원의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2년차 아내이기도 하고, 20개월이 된 아들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존부터 가지고 있던 딸과 누나라는 지위도 있습니다. 로스쿨은 졸업했지만 여전히 학생이기도 합니다.

학생 때보다는 다소 많아진 지위들 때문에 여러 개의 공을 저글링하며 살아가는 기분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공들 중 '변호사'라는 공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로스쿨의 장점 중 하나는 다양한 백그라운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을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이 글을 읽을 로스쿨 학생들도 기존에 변호사가 없었던 분야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기존에 변호사가 없던 대학병원에 진출했었기에 그에 대한 제 경험을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세브란스에 입사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면접에서 '김 할머니 판결'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던 것, 같이 면접을 본 변호사들의 얼굴, 첫 출근 날 낯설었던 기억들이 4년 전이라 믿기지 않을 만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처음으로 변호사를 채용한 조직이었기 때

문에 많은 부분 시행착오가 있었고 계속 부딪치며 나름의 자리를 만들어가야 했습니다. 모 드라마처럼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나름의 드라마가 있었다고 할까요.

초반에 저를 괴롭히던 것은 의료진과의 소통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회의에 들어가면 의사들은 자연스럽게 의학용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 환자는 fever, sputum, desaturation 지속되어 R/O pneumonia 소견입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풀어쓰면 '발열, 객담, 산소포화도 저하가 지속되는 걸로 보아 폐렴으로 추정됩니다'라는 의미인데, 글로 보면 그나마 나운데 구두로 하는 경우에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조금 익숙해져서 자주 쓰이는 용어 정도는 알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양해를 구하고 자세히 여쭙보기도 하는 요령이 생겼습니다만, 처음에는 회의 진행을 쫓아가는 것조차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넓은 업무 분야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병원이기 때문에 의료 관련 문제들만 처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의료와 무관한 문제들이 의료 관련 문제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에 다소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조직의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인사, 노무, 구매 등과 같은 기본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직 내 1인 사내변호사는 몸담은 조직의 주업종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처음 들어간 조직은 업무 과다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변호사가 타인을 조력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여러 부

서에서 도움을 청해서이기도 하고, 법과 관련이 아주 없는 분야가 드물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변호사라는 이유로 상대방이 좀 더 많은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하는 것이 시너지가 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잘 구분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밀려드는 업무에 치어 변호사가 해야 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실 원내에서 한 명뿐인 변호사로서 살아가는 것은 고달플 때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직의 권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몰입하면 할수록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많은데, 다른 변호사 동료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사내변호사들은 주로 자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빠르고 정확한 회신을 받기를 항상 원하는 현업부서를 대하며 가끔은 내가 재판기 같다는 생각을 하며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대학 병원은 변호사가 진출한지 오래되지 않은 조직이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 가치와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압박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 입사 당시에는 대학병원에 변호사가 있는 것이 매우 희귀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어느덧 여러 대학병원에 약 14명 정도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변호사가 없던 분야에 진출해서 그 분야에도 변호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후배들이 가끔씩 묻는 질문 중에 "학생일 때가 좋냐, 변호사가 돼서 좋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단연코 지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 후배들이 부러울 때가 매우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그 부러움의 대상은 주로 방학임을 고백합니다), 그걸 감안해도 현재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삶이 더 복잡해지고 무게가 무거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변호사가 되고 나서는 제가 좀 더 저처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일 때 저는 주어진 것을 하고, 그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같이 천성적으로 게으르고 수동적

인 사람은 그 틀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건, 발전을 위해서건 스스로 살 길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 고민한 만큼 삶을 변화시키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고민은 힘들지만 매력이 있습니다. 어느덧 5년차임에도 여전히 커리어를 고민하고, 영역을 넓히든, 깊이를 더하든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긴 하지만, 그래도 변호사로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만족스럽습니다.

요즘 법조계 내적, 외적으로 갈등이 있고 상황이 무조건 좋다고 만든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라는 직업은 매력적입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직역에 진출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나간다면 변호사 업계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66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건, 발전을 위해서건 스스로 살 길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 고민한 만큼 삶을 변화시키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고민은 힘들지만 매력이 있습니다. 99

박다래 변호사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는 원내 변호사입니다. 학부부터 로스쿨(연세대), 직장파 박사과정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을 신촌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 학부 새내기 로 들어왔을 때는 신촌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신기하기만 합니다.



사진제공: 서울대 법전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서울대 법전원에서 특강 진행

지난 5월 13일(금)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 302호에서는 서울대학교 법전원 학생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꿈꾸는 모든 것이 미래가 된다 - 헌법과 헌법재판」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열렸다. 박한철 재판소장은 특강을 통해 헌 시대에 필요한 헌법의 가치에 대해서 강조하고 헌법재판의 기능과 역할,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등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로스쿨-사법시험 논란에 대해서는 “모든 제도가 하루아침에 정착할 수는 없고 20~30년은 걸린다”고 말하며, 이 둘은 양자택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서울대 특강은 전남대, 부산대, 경북대, 전북대에 이어 다섯 번째로, 젊은 세대와의 소통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 내사 종결 '혐의없음' 밝혀져

대구지방경찰청은 경북대 법전원 부정입학 의혹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내사를 종결했다고 지난 5월 26일(목) 밝혔다. 경찰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관계자인 권모씨가 '부정입학 관련 의혹을 밝혀달라'고 신고함에 따라 지난달 초 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경북대 신평 교수 저서에 '경북대 로스쿨 교수 1명이 아는 사람 청탁을 받고 그의 아들을 합격시켜야 한다'며 동료 교수 연구실을 찾아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실려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해당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부친 직업을 변호사로 표기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단지 유의사항을 어긴 것일 뿐 입학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 경찰은 부정입학 의혹을 받은 학생 면접에 참여한 면접위원 3명이 응시생 20명에게 준 점수는 평균 63.66667점인데 반해 해당 학생은 이보다 0.33333점 높은 64점에 그치는 등 특별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법전원 등록금 인하·동결」 발표

5월 16일(월) 교육부는 법전원 등록금 인하 및 동결에 관한 계획을 발표했다. 모든 국립대학 법전원은 향후 5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고, 11개 사립대학은 등록금의 약 15%를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등록금 인하와 관계없이 국·사립 모든 법전원은 장학금 지급률을 30%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발표 이후 동아대, 고려대, 연세대가 추가로 등록금 인하 계획을 밝혔다. 이번 계획을 통해 법전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2016-05-26



기사출처: 로이슈 2016-05-26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강원대 법전원에서 '법관윤리와 법원' 강연

춘천지방법원 김명수 법원장은 지난 5월 23일(월) 강원대학교 법전원 법학도서관에서 「법관 윤리와 법원」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김명수 법원장은 법관과 법원의 가장 중요한 법관윤리는 '공정함'이기에 이를 위한 법관윤리강령의 '외부의 영향으로부터의 독립, 청렴, 관례로 인한 의심에서 벗어날 것', '평등하게 재판을 해야 할 것' 등의 규정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강연을 진행했다. 참석한 법전원생은 최근 불거진 법조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이런 문제는 단순히 개인에게 법조윤리를 강조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라기보다 전문 변호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김명수 법원장은 학생의 의견에 동의하며 “법관 개인의 공정과 윤리의 준수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만들어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제1회 한국민사법학회 대학생논문경연대회 성균관대 법전원 학생 최우수상 수상

한국민사법학회는 민사법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대학원생들의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1회 대학생논문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논문의 주제는 우리나라 민사법학과 관련된 자유주제로, 총 12팀(또는 개인)이 참가했다. 논문경연대회는 6월 9일(목) 안동 국학문화회관에서 1박 2일로 진행됐으며, 경연 이튿날 아침 수상작이 발표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성균관대학교 법전원 전창은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부산지방법원 동아대 법전원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 개최

부산지방법원은 6월 1일(수) 오후 부산 동아대 부민캠퍼스 법전원 모의대법정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을 개최했다. 캠퍼스 열린 법정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합의부 판사와 재판 진행요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정식 재판으로, 방청을 원하는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해 법관들에게 직접 질의가 가능해 법률을 공부하는 예비 법조인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캠퍼스 열린 법정은 부산지법 행정2부 한영포 부장판사, 신수빈 판사, 신동웅 판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아케이드 게임물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의해 사행성 게임으로 판정돼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을 받아 이를 취소시켜달라는 사안을 다뤘다. 동아대 법전원생 15명은 그림자 재판부 재판에 참여, 최종판결문이 나올 때 재판에 대한 의견과 평가를 부산지법에 전달했다.



사진제공: 동아대 법전원

부진정 법학사의 로스쿨 적응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양승현



66
우리는 법조인으로서 사회에 나가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부진정 법조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99

I. 들어가며

부진정(不眞正).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전 동계 사전교육과정인 프리로스쿨 과정 중 동기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는 학부과정에서 '법학사'를 수여받았는지, 그 외 전공(편의상 '비법학사'라고 부른다.)인지의 여부였습니다. 법학을 전공하였기는 하였지만 기타 법조시험의 수험생활도 없었을 뿐더러, 간단한 법률용어의 구분조차 헤매는 저는, 법학이 휘발성이 강하다는 변명 뒤에 숨을 수도, 감히 법학사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스스로를 농담 섞인 표현으로 '부진정 법학사'라고 자칭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의 한 학기를 보냈으며, 제가 본 로스쿨의 모습과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적어보려 합니다.

II. 로스쿨에서의 공부

단지 한 학기만을 이곳에서 보낸 제가, 로스쿨에서의 학습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만 독자 분들께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수의 타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들도 느끼겠지만 학습량 자체의 방대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전, 먼저 진학한 선배들은 항상 도서관에서 새벽까지 시간을 보

내게 될 거라고 가벼운 농담을 던지곤 했던 이야기가 현실이었던 것이죠. 예·복습만으로도 벅찬 진도와 시간 관리는 시험과 맞물려 멈추지 않고 무섭게 쫓아왔으며, 가벼운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단 하나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반면 이 공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와 교육과정을 통해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동기들과 선배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법조인을 목표로, 모두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자신의 의지로서 하고 있으며, 성취하여 당당히 법조인으로서 사회에 나가는 선배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공부의 방법은 각자 다르겠지만,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계단을 손수 만들며 새벽을 보내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II. 강원대학교 로스쿨의 장점

직접 다니면서 느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점을 3가지로 분류하여 보았습니다. 타 학교의 로스쿨을 다녀보지 않았기에 직접 비교할 순 없으나, 느껴 본 그대로 적어보려 합니다.

첫째, 시설측면에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공부하기에 적합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학전문대학원생만이 사용하는 전용기숙사건물이 신설되어 학부생들과 다른 시간관리가 필요한 법전원 학생들에게 맞춰진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타 기숙사보다 상당히 넓은 2인1실의 제공과 빌트인 방식의 개별 파티션, 샤워 룸, 세미나실 등은 학습여건의 만족도를 높여주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강의실 또한 40명 정원의 소강의실 위주로 강의에 집중 할 수 있으며, 기숙사와 강의실, 식당이 각각 50m내외의 거리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 또한 큰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제도 측면에서 교수님들께 많은 도움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강의의 높은 수준은 제가 감히 더 언급할 것도 없고, 학부와는 다르게 소인원으로 구성된 지도교수 제도를 통해 직접 법조인으로 일하셨던 경험들을 전해들을 기회가 많다는 점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개개인에 대한 면밀한 지도를 통해 법학적 소양 이외에도 다각적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형식적이지 않은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어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공부시간의 경우에도 강제성이 있는 체크가 아니라, 개인의 의욕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편인 점도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대체로 불친절한(?) 학부의 조교님들과는 달리, 학생 하나하나를 존중해주시는 조교님들과 친절하신 행정실 직원 분들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면학적인 분위기의 조성과 원만한 인간관계가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적은 정원은 분위기의 조성에서 큰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자발적·지속적으로 선·후배·동기 간에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짧지 않은 로스쿨 재학기간동안의 수험부터 졸업이후의 생활에 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가족과도 같은 분위기로 더 큰 세상을 향해 경쟁하는 강원대 로스쿨의 분위기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P.S 너무 가족 같은 분위기라 아직까지 동기들 사이에서 CC커플이 없다는 사실..)

IV. 마치며

부진정(不眞正). 우리는 법조인으로서 사회에 나가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부진정 법조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21세기 현재의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에 있어서 모순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늘랐던 점 중 하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장래희망이 무엇이라는 물음에 대다수가 '교사', '공무원' 인 반면, 왜 교사나 공무원이 되고 싶은지에 대하여 물어보면 '수입과 생활이 안정적이라서, 선호 직업이라서', 심지어 '연금이 많이 나와서'라는 답변이 추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아이를 사랑하고, 가르침을 나누고 싶어 해야 함이 첫째고,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공익에의 봉사가 첫째여야 하지만, 우리 사회는 부진정 교사, 부진정 공무원을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조인을 준비하는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들도 위와 같은 뒤통을 주의해야 함을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 하려 합니다. 최근 대두된 법조비리 등은 몇몇 법조인의 마음가짐에의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들이 아니었을까요. 진정한 법조인이라면 수입, 지위, 권력 등이 아니라, 사회정의구현을 목표로 억울한 자에 대하여 손을 뻗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첫째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마음을 다잡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은 바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스스로를 다듬어 더 이상 부진정법학사가 아닌, 진정한(眞正) 법조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으리라 믿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분들께서 마음속의 정의를 날카롭게 버리고, 진정 법조인으로 성장하여, 사회의 어두운 구석까지 올바른 정의를 널리 퍼뜨려주시길 기대하며 글을 마칩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

법무법인(유) 율촌 실무수습기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허창환



66
과제를 하는 날에는 하루가 통째로 편집되어 없어진 것처럼 느낄 만큼, 인턴들의 과제 몰입도는 무서울 정도입니다. 저희 조의 담당 멘토 변호사님은 실제 대형로펌 변호사의 삶과 닮아있는 인턴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9

1. 들어가며

저는 평소에 공정거래법에 관심이 있었고, 송무 뿐만 아니라 자문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에 2학년 대형로펌 하계 인턴과정에 지원하였고, 법무법인(유) 율촌에서 실무수습을 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 대형로펌의 실무수습 선발과정

가. 실무수습의 의미 : 취업

로스쿨 실무수습은 취업을 전제로 하는 과정도 있고, 해당 분야의 실무자들이 하는 업무를 경험해 보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취업전제형 인턴과정을 진행하는 곳이 바로 대형로펌들입니다. 대형로펌들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검찰과 로클릭 보다 먼저 1학년 겨울 ~ 2학년 겨울까지 채용과정을 진행합니다. 로스쿨 출신들은 경력직 수시채용이 아닌 이상, 대형로펌 취업의 유일한 통로가 법학전문대학원생 인턴과정입니다.

다만, 율촌은 인턴과정에서 채용된 인원 외에,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운영합니다. 즉 지방 소재 13개 로스쿨에서 전학기 성적 상위 20% 이내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3학년 여름에 시험을 통한 선발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선발시기

로펌인턴은 1학년 여름, 겨울, 2학년 여름, 겨울 총 4번의 인턴 과정이 진행되고, 각 로펌마다 선발시기가 상이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각 학교나 관심 있는 로펌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학기 초에 바로 선발하는 태평양을 제외하고, 대부분 로펌들은 학기시작 후 한 달 즈음부터 모집하므로, 그 시점부터 주의를 기울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선발과정

대부분 로펌의 공통된 필요서류는 ① 로스쿨 학점 ② 학부학점 ③ 영어성적 ④ 자기소개서 ⑤ 증빙서류입니다. 학점이 좋거나, 해외 대학 출신으로서 외국어 특기자, 특별한 자격증(의사, 한의사, 변리사, 회계사 등) 및 로펌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경력이 있다면 선발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비법 출신들은 1

학년 학점이 좋지 않더라도 성적이 수직 상승하여 선발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즉 발전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인턴은 각 기수마다 총 30여명 전후로 선발되어 그 중 0명 ~ 10명 정도가 최종 컨펌을 받는다고 합니다.

3. 법무법인 율촌은?

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로펌

율촌(律村), 즉 법률가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법무법인 율촌은 삼성동 섬유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2014년 과세당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변호사 숫자는 233명으로 6위이지만, 동년 매출액 기준으로는 4위이고, 사내 변호사가 선호하는 로펌에서 광장, 태평양과 함께 2위 그룹을 차지할 만큼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나. 율촌의 6개 그룹

율촌은 총 6개의 그룹으로 분화되어 있습니다. ① 송무 ② C&F(기업법무 및 금융) ③ IP(지적재산권) ④ 공정거래 ⑤ TAX(조세), ⑥ 부동산 건설 그룹으로 세분화되어 각 변호사의 전문성에 맞게 팀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세분야의 1위 로펌으로 유명하고, 공정거래그룹도 전통적으로 실력을 자랑하는 분야입니다.

각 그룹에는 국내 변호사뿐만 아니라 외국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전문위원 등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겠지만, 인턴들 사이에서도 송무는 법학과, C&F는 경영학과(회계전공자 또는 회계사), IP는 변리사, 공정거래팀은 경제학과 조세는 회계사, 부동산 건설은 법학, 건축학과 등 다양한 전공자들이 선호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로스쿨의 '전문화된 법조인 배출'이라는 취지가 적절하게 적용되는 반면, 관련분야 비전공자에게는 일종의 진입장벽이 생긴 느낌을 받았습니다.

4. 율촌의 인턴과정 개요

가. 인적구성

저는 2015년 2학년 여름 인턴에 참여하였고, 당시 총 27명이 선발되었습니다. 나이는 대부분 20대 중반, 군필 남자는 20대



아침식사 / 인턴 교육 장소

후반이 가장 많았습니다. 매 기수마다 지방 소재 로스쿨에서는 1~3명이 선발된다고 합니다. 주요 대학 로스쿨에서만 20여명이 선발되므로, 같은 학교 동기들이거나, 다른 인턴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서로 친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처럼 지방에서 혼자 온 로스쿨생들의 경우에는 초반에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별 모임이 시작되면 서로 금방 친해지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나. 복장 · 식사 & 행정지원

출퇴근 복장은 기본적으로 정장이지만, 특별히 변호사님과



멘토 변호사님과 / 함께 했던 조원들

의 일정이 잡혀 있지 않고 과제만 하는 날에는 단정한 사복도 괜찮다고 공지 해 줍니다. 출근시간은 09시까지 이지만, 좀 더 일찍 와서 요일별로 달리 준비된 아침(주로 컵밥, 김밥, 맥모닝 세트 등)을 먹으면서 답소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 모든 지원을 해 주시고, 행정담당 팀장님께서 향후 일정에 대한 공지 및 인턴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소통을 해주십니다. 멘토 변호사님과 더불어 인턴들의 큰 힘이 되어 고마운 주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다. 교육장소 및 교육교재

교육장소는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율촌 내부의 인턴 교육장에서 이루어지고, 각자 과제에 대비한 교과서를 준비해 옵니다. 각 그룹별로 필요한 경우 배부하는 유인물도 있지만, 주로 과제에 대비하여 각자 공부하던 기본서와 연수원 교재들을 많이 준비해 온 것 같습니다. 일부는 케리어에 7법을 골고루 가져오기도 하는데, 율촌 과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매우 촉박하게 진행되므로, 책을 찾아볼 여유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요건사실론이나 민사실무 II 정도만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 멘토변호사

인턴을 4개 조로 나누어 조 단위로 운영되며, 로스쿨 출신(1~4기) 소속 변호사들이 2명씩 멘토 역할을 담당하여 저희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직속 멘토변호사님들이 로스쿨 출신이라서 저희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학교를 불문하고 로스쿨 선배로서 공·사를 불문하고 많은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점에서 인턴과정의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5. 인턴교육 & 과제수행

가. 인턴교육

1) 1주차 : 공통교육

1주차는 공통과정이고, 2주차에 인턴들이 직접 각 그룹을 선택하여 그룹별 인턴과정이 진행됩니다. 1주차의 각 그룹별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인턴들은 2주차에 어떤 그룹을 선택할

가한다고 합니다. 일부 문제 난이도는 상당히 높고, '답이 없는' 문제인 경우가 많았는데, 나중에 출제하신 변호사님께서 말씀 해 주시기로는 "대기업 사내변호사들이 고민 끝에 대형로펌에 자문을 구하는 만큼, 대형로펌 변호사들은 상당히 어렵고 답이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짧은 시간 안에 의견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해결 능력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좋았던 교육은, 다른 곳에서 경험하기 힘든 전문분야(TAX, 공정거래, IP 등) 및 quick research 등의 체계적 교육이었습니다. 그룹별 변호사님들께서 강의를 진행하시면서, 그룹소개, 업무와 관련 법률의 내용을 강의 하시면서 실무상의 노하우(의견서의 강도에 따른 Tone, Qualification, 고객과의 communication, IRAC 등)를 함께 알려주십니다.

특히 의견서 작성에 대한 ① 고객의 요청(전화, 회의) ② 의견서 작성의 준비단계 ③ 의견서 작성 직전 단계 ④ 의견서 작성 ⑤ 의견서 검토 받기 ⑥ Finalize 및 송부 등의 단계별 설명은 향후 변호사로 활동함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강의였습니다.

2) 2주차 : 공정거래법 교육

저는 2주차 OJT 과정에서 공정거래그룹을 선택하였습니다. 공정거래그룹에서는 2일 정도 공정거래법 전반에 걸쳐 교육을 실시합니다. 법리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입장에서, ① 인지 단계 ② 조사단계 ③ 심의·의결단계 ④ 결과조치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관련 근거 및 대응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조사대응 요령부터 사후 불복절차 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로 강의를 잘 해주셔서, 공정거래법의 초심자도 팀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불복절차에서 ① 이의절차 ② 행정소송 ③ 형사소송 ④ 민사소송으로 이루어지는 실무적인 내용들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나. 과제

1) 1주차 : 공통과제

1주차에는 공통과제를 3번을 출제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① 문제해결 능력, ② 내용은 간결하고 정확하게, ③ 맞춤법, 어법 등의 형식 ④ 정확한 리서치를 통한 근거제시 등으로 평

가한다고 합니다.

일부 문제 난이도는 상당히 높고, '답이 없는' 문제인 경우가 많았는데, 나중에 출제하신 변호사님께서 말씀 해 주시기로는 "대기업 사내변호사들이 고민 끝에 대형로펌에 자문을 구하는 만큼, 대형로펌 변호사들은 상당히 어렵고 답이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짧은 시간 안에 의견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해결 능력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기업법무, quick research, 의견서 쓰기, 답변서 쓰기 등의 유형으로 출제 되었습니다. 다른 로펌들은 시간제한이 없어 밤샘 하는 인턴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율촌은 2시간, 4시간 6시간 과제 등으로 시간을 제한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제를 하는 날에는 하루가 통째로 편집되어 없어진 것처럼 느낄 만큼, 인턴들의 과제 몰입도는 무서울 정도입니다. 저희 조의 담당 멘토 변호사님은 실제 대형로펌 변호사의 삶과 닮아있는 인턴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 2주차 : 공정거래그룹 과제

2주차에는 각 그룹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저는 공정거래그룹을 선택하였습니다. 공정거래 그룹에서는 총 4번의 과제가 출제되었는데, 그 중 2개는 일반적인 민사 의견서를 쓰는 것이었고, 2개는 공정거래 분야에 관한 의견서 및 관련한 소장 작성이었습니다.

공통과제와 달리 공정거래그룹 개별 과제에서는 개별 강평 시간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들께서 생각보다 꼼꼼하게 첨삭을 해 주시고, 잘 된 부분에 대한 칭찬과 아쉬운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고, 기록에 대한 감이 없는 때이므로, 변호사시험 기록 기출문제와 메모법이라도 숙지 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 이벤트

가. 변호사님들과의 만남

각 그룹별 변호사님들, 지인, 로스쿨 선배와의 만남 그룹 대표 변호사와의 식사 자리까지 상당히 많은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2차 3차까지 이어지는 술자리도 잦았



요리왕 회의 / 요리왕 선발

고 했지만, 최근에는 회식은 1주에 2번씩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멘토 변호사님들은 식사 자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일정을 함께 합니다.

나. 율촌요리왕

율촌 요리왕은 과제가 끝난 날 저녁에 레스토랑을 빌려, 조별로 요리 대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40여 가지의 요리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재료가 모두 준비되어 있고, 전문 사회자가 진행합니다. 평가는 총괄 변호사 3분이서 하는데, 저희 조는 요리왕에 많은 신경을 써서 만들기 어렵다는 스키야끼와 깐풍기를 선택하였고, 음주 후 해장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요리왕에 선발되었습니다. 요리왕에 선발되면 컨펌으로 이어진다는 관습이 있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 조원 한 명도 최종 컨펌이 되는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다. 각종 파티 및 회식

1주차 때는 환영파티 및 간단한 회식, 2주차 때는 각 그룹별 회식, 마지막 날에는 standing wine party와 2차가 이어집니다. 인턴 과정 내내 변호사님들께서 특별한 점심과 저녁을 사주셨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밥이 먹고 싶을 정도로 특별한 음식들을 많이 사주셔서 율촌 내 직원식당에 가는 날이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직원식당 음식도 상당히 맛있게 잘 나왔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standing wine party를 하고, 2차 술자리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다들 2주 동안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과제를 해결하느라 피곤해 하였고, 결국 처음에만 서 있다가 다시 의자를 배치하여 앉아서 진행하였습니다.

7. exit interview & 컨펌

마지막 날은 모든 인턴들을 대상으로 각 그룹별 파트너 변호사님들께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터뷰에서 전문적인 분야나 상법과 민법에 관하여 물어봤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자소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에게도 자소서를 기반으로 물어보셨고, 2주간의 저희 과제 성적, 멘토 변호사님들의 의견, 로스쿨 성적들이 모두 종합된 문서로 제공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wine party

최종 인터뷰가 끝나면 마지막 와인 파티를 끝으로 공식적인 인턴 과정은 종료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내부적인 회의 및 절차를 거쳐 2차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대표변호사와 1시간 가량의 인터뷰와 최종 컨펌 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8. 마치며

가. 실무수습 양식 확인 관련

율촌에서는 수료자명단, 출석현황, 개인별 평가표, 실무수습 시간표를 실무수습 종료 후 별도양식으로 각 학교에 송부하므로 중복되는 양식은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학기에 실무수습(1학점) 수강 신청을 잊지 말고 해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이런 분들에게 추천 드립니다.

대형로펌 변호사를 꿈꾸거나, 대형로펌의 전문분야를 경험해 보고 싶거나, 대형로펌이 아니면 거의 해보지 않을 사건

66

함께 했던 조원들과 멘토 변호사님들과는 지금도 연락하며 의지하고 지내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부로 지친 로스쿨 생활을 속에서,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99



들, 자문 업무에 관심 있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율촌 인턴 과정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조원들과 멘토 변호사님들과는 지금도 연락하며 의지하고 지내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부로 지친 로스쿨 생활 속에서,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인턴 과정을 위해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형로펌 인턴에 지원해 볼까?”라는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하여 최대한 정보제공 위주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과제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비밀서류 때문에 자세하게 적을 수 없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의 실무수습기관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

일단 달렸으면 뛰어야 한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남기엽



66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고민하는 것도 좋은데 그 고민의 결과 발을 떼 트랙 위에 있다면
그 땀 무조건 그 결정을 믿는 것이 맞다. 99



1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한 순간이 있다.

2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내 인생 전체는 아니더라도 꽤 많은 부분이 바뀌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누구나 한 번쯤 놓인다. 나의 경우 기획사 미팅을 앞두고 있을 때,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가 그랬다. 어떤 선택지가 좋을지 주위의 조언을 얻고 책의 명언을 자기의 상황에 맞게 전유해보기도 하지만 무엇이 베스트인지는 오리무중이다. '알과고'처럼 생각하고 '이세돌'처럼 행동하는 게 말이 쉽지 결코 만만하지 않은 것이다.

3 하지만 경험적으로 나는 한 가지는 확신하게 되었다. 일단 뛰기 시작했으면 전력질주하는 게 성공확률이 높다. 베이스에서 발을 떼 도루를 시작했는데 "아니지? 돌아갈까? 지금 가면 아웃이지 않을까?" 하는 고민의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실패의 확률은 증적된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가지 않은 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 왔다갔다 방황하는 것을 '사색'으로 포장해 아프니까 청춘이라느니 멈춰야 비로소 보인다느니 자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 당신은 영락없이 아웃된다.

4 이러한 현상은 논리적, 귀납적으로 해제 가능하다. '플라시보' 효과가 대표적이다. 위약을 먹어도 그 약이 진짜라고 믿는 순간 병이 나을 확률은 더 높아진다는 통계를 우리는 정말 많이 봐 왔다. 자기가 하는 행동에 자신이 있으면 확신이 생기고 집중할 수 있게 돼 결과적으로 일이 잘 되는 경우가 많다. 이미 발을 떼었음에도 고민을 한다는 건, 그만큼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길어질수록 자신이 실패할 확률은 늘어난다. 일단 도루를 위해 발을 뺐는데 계속해서 돌아갈까 달릴까 고민하는 타자에게 남는 건 헛사다.

5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라 생각해서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고민하는 것도 좋은데 그 고민의 결과 발을 떼 트랙 위에 있다면 그 땀 무조건 그 결정을 믿는 것이 맞다. 할 게 없어 대학원에 진학했든,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든, 인생 뒤 있냐며 배낭여행을 결심했든, 충분히 고민을 했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자신은 확신을 넣고 확신은 후회를 남기지 않는다.

6 본인이 아직 베이스에 발을 붙이고 도루를 고민하고 있다면 투수의 어깨, 몸짓, 바람, 타자의 컨디션, 감독의 싸인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한없이 신중해져라.

7 하지만 일단 달렸으면, 뛰어야 한다. **창**

“전국 로스쿨 연계… 변호사가 해야 할 일 할 것”



황인규 한변협 공익인권센터장

“회원들의 공익 활동을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겠습니다.”(황인규 변호사, 공익인권센터 센터장)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지난 3일 산하 공익인권센터의 문을 열었다. 한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지난해 출범했다. 현재 회원만 2000여명이 이른다. 협회 출범 후 지금까지는 주로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 등 법조인 양성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다. 그동안 법조인 양성에 관한 활동에 머물렀던 한법협은 공익인권센터를 설립하며 활동 범위를 한 단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공익인권센터 초대 센터장은 성균관대 리걸클리닉의 황인규 변호사가 맡았다. 15명의 변호사들이 센터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센터 개소 소식이 알려지자 10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황 변호사는 “회원들의 공익 활동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며 “두 달여간 준비 끝에 센터 문을 열게 됐다. 회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논의해 가치 있는 일을 찾아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이뤄진 단체다. 각 학교의 리걸클리닉, 인권법학회 등과 연계해 공익인권 활동의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변협의 공익인권센터는 △각 로스쿨의 리걸클리닉 실무 지원 △공익 소송 발굴 및 수행 △복지시설과 사회취약층을 위한 봉사활동 등을 목표로 한다.

다른 로펌 등의 공익인권센터와 다른 점은 ‘로스쿨과 연계해 전국 단위의 법률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점이다. 황 변호사는 “로스쿨 리걸클리닉, 인권법센터 등에서 무료법률상담은 할 수 있지만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려면 변호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로스쿨 협의회, 전국의 로스쿨들과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해 사회취약계층의 법률 지원 뿐 아니라 소송지원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이 과정에서 소송이 필요할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회원들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공익소송을 직접 기획해 진행하는 것도 목표다.

벌써 첫 번째 공익소송을 준비 중이다. 황 변호사는 “한 회원이 집단 소송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다”며 “혼자서 하기 힘든 사건이기 때문에 센터 차원에서 함께 하면 좋겠다는 데 뜻이 모였다.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6월 중에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입법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황 변호사는 “불합리한 법률 개선 운동이나 입법 모니터링 팀 등을 구성해 입법과 제도에 대한 감시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며 “법률 지원 뿐 아니라 교육과 봉사활동도 주요 활동 목표로 두고 있다. 2018년까지 전국 로스쿨과 센터를 연계해 1곳 이상 봉사처를 마련해 정기적인 운영 체계를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변호사가 공익인권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로스쿨을 다니면서다. 그는 “이주민지원센터 ‘친구’에서 실무수습을 하면서 탈북민,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들을 많이 만났다”며 “이들을 상담하며 공익인권 분야에 법률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 활동을 통해 로스쿨 학생과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졸업생들이 학생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이를 통해 사회에 바람직한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창**

박보희 기자

기사출처: 더월 2016.06.05.

로펌行 대신 스타트업에 '취직'하는 변호사들

취업난 이슈와 맞물려 스타트업 사내 변호사로 자리잡는 사례 늘어... 실무경험 쌓고 전문변호사 커리어도 쌓고 '1석2조'

박진석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직방 경영관리팀 근무



허재창 변호사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서울시립대 로스쿨 졸업
원티드랩 공동 창업



최재원 변호사

보스턴대 로스쿨 졸업
원광대 로스쿨 졸업
북팔 법무이사로 근무



김유나 변호사

이화여대 법대 졸업
이화여대 로스쿨 졸업
피키캐스트 법무팀장 근무



변호사들이 스타트업 사내 변호사로 등지를 속속 들고 있다. 진입장벽이 높은 로펌(법률사무소)보다는 스타트업에서는 실무 능력을 갖추고 특화된 분야에서 전문 경험을 쌓은 '전문 변호사'로서 성장하기 좋다는 이유에서다.

31일 IT업계에 따르면 변호사들이 스타트업으로 대거 몰려들고 있다. 이들 변호사는 법적 이슈가 많은 산업군(채용, 부동산, 저작권 등)에서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스타트업 고용 안정을 위한 인사노무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주거정보 제공 플랫폼 사업자인 '직방'의 박진석 경영관리팀 매니저는 전·월세 매매 등 부동산 및 IT 영역과 관련된 법령 해석 및 검토를 담당하고 있다.

박 매니저는 '전통적인 법조인'이라는 역할론에서 벗어나 전문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쌓기 위해 스타트업에 발을 내디뎠다.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에서 기업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배우며 자신만의 커리어패스를 개발하기도 쉽다는 설명이다.

박진석 직방 매니저는 "법학적 사고방식은 기업가의 자질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며 "젊고 건강한 직방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언젠가는 즐겁고 유익한 회사를 직접 창업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최재원 북팔 법무이사도 IT기업의 실무 현장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 스타트업으로 눈을 돌렸다. 현재 그는 북팔과 작가와의

계약 서류 검토와 더불어 회사가 새로 준비하는 사업에 대한 규제 내용을 검토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최 변호사는 "현업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법률적인 조언만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실무를 배우면서 자기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타트업은 정말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채용 정보 제공 서비스 '원티드랩'의 허재창 CTO는 창업에 필요한 법률적인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로스쿨에 진학한 사례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개발자로 다년간 쌓아온 IT분야 경험을 법률적 지식과 융합하면 창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 때문이다. 현재 허 CTO는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사내 계약과 관련된 부문을 직접 검토한다.

피키캐스트의 김유나 법무팀장은 사내 에디터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제공하거나 저작권 가이드를 정립하는 등 콘텐츠 저작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역시 스타트업이라는 자유로운 기업문화 속에서 법무 지식을 토대로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다는 이유로 피키캐스트에 합류했다.

이같은 흐름은 스타트업들도 준법경영, 콘텐츠보호 등 법적 이슈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과 맞물려 있다. 특히 스타트업은 법인 설립하는 것에서부터 사업 타당성 검토, 계약서 작성 등 법률적 이슈 발생 빈도도 높다. 법률 자문을 구하는 대신 변호사를 직접 채용하는 것이 시간, 비용 측면에서 효과가 크기에 스타트업의 변호사 채용이 눈에 띄고 있다.

안기순 텍스트팩토리 대표는 "보통 스타트업의 활동 분야가 법률적 규제가 심하거나 아직 공백인 영역인 경우가 많기에 법률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는 점이 메리트가 될 수 있다"며 "스타트업 생태계나 서비스를 잘 이해하는 사내 변호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법률 이슈를 해결하기 한결 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변호사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스타트업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도 적극적이다. 예를

들어 직방은 올해 10월 출산을 앞둔 여직원을 위해 출산휴가 제도를 올해 처음 만들었다. 복지 혜택의 일환으로 생활법률 상담을 제공하거나 고려 중인 곳도 있다.

한편 변호사들이 스타트업행을 택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변호사 취업시장과도 관련이 있다. 매년 1500명의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으나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은 로펌이나 기업 사내변호사, 공공기관 취업 등으로 제한적이다. 특히 로펌은 선배들과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하기는 하나 그만큼 성공에 대한 진입장벽은 높은 편이다.

원하는 곳에 취업하지 못해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더라도 경제적 상황은 만만치 않다. 변호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개업변호사 1인당 연평균 사건수임건수는 2011년 34건에서 2013년 24건으로 줄었다. 사건 2건으로는 월 임대료를 내기에도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한 법조 관계자는 "변호사 수의 증가로 인해 신규 변호사들이 기존 송무(소송에 필요한 절차와 업무)를 벗어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도 스타트업의 변호사 고용에 대한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모든 기업이 변호사와 같은 고급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대신 각종 규제 이슈가 많은 산업군인 만큼 법률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는 것은 물론,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임석영 와이퍼 이사는 "모든 스타트업들이 대기업처럼 사내 법률팀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며 "다만 계약서 검토와 투자 관련 법률지식만 알아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법률 관련 전문가의 네트워크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

이수경 기자
기사출처: 뉴스핌 2016-06-01

법률시장 개방과 함께 우리나라 변호사들도 해외로 진출하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요즘 변호사의 국제업무가 더욱더 중요시되고 있다. 세계 변호사협회 아시아본부의 신혜연 인턴이 세계변호사협회 학생 위원회 공동의장 에드워드 친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글로벌 법조인의 꿈을 키우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세계변호사협회 학생위원회 공동의장 Edward Chin.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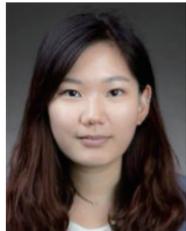
“국제적인 네트워크, 세계변호사협회(IBA)를 통해서 가능해요!”

global interview

세계변호사협회-European Law Students' Association 2015년 컨퍼런스



에드워드 친
Edward Chin,
세계변호사협회
학생위원회 공동의장



신혜연
세계변호사협회
아시아본부 인턴

신혜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에드워드 저는 현재 런던정치경제대학교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LSE) 의 LLM과정에 재학 중이고요, 세계변호사협회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학생 위원회 (Law Students' Committee)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신혜연 세계변호사협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에드워드 세계변호사협회는 전세계 법조인들을 연결하는 세계최대의 국제 변호사 단체로, 전세계 160개국의 80,000명이 넘는 변호사들과 한국의 대한변호사협회를 포함, 190개 이상의 변호사협회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신혜연 세계변호사협회의 활동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에드워드 세계변호사협회는 세법부터 항공법까지 다양한 분야의 운영위원회로 구성되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세계 각국의 변호사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하여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토론을 나누며, 국경을 초월한 네트워킹을 통하여, 법률 정보에 대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혜연 현재 공동의장을 맡고 계신 세계변호사협회 학생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수 있을까요?

에드워드 저희 학생 위원회는 다른 학생 단체들과 다르게 세계변호사협회 산하의 운영 위원회로, 전세계의 로스쿨생들에게 유익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이 단체에 가입한 학생들은 세계변호사협회의 방대한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노하우도 배워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함으로써 전세계의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유명한 변호사들의 패널이나 강의를 듣고 그분들과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혜연 어떤 내용의 컨퍼런스들이 진행되나요?

에드워드 저희 학생 위원회는 매년 런던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으며, 작년 런던에서 열린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취업시 필요한 인터뷰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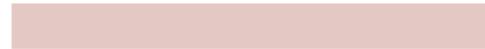
이력서 작성 전략,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법률시장, 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한 주제들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홍콩에서 조금 특별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혜연 올해 홍콩에서 진행되는 학생 컨퍼런스는 어떻게 특별하게 진행되나요?

에드워드 처음으로 학생 위원회 컨퍼런스를 아시아에서 개최합니다.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 홍콩에서 오는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열립니다. 금융의 중심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답게 주제도 기업법률과 금융법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러 금융 및 기업 법률 전문가들의 패널과 강의,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워크샵과 토론회 등이 이틀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위원회의 바람은 학생 위원회 컨퍼런스가 전세계의 다양한 도시들에서 개최되는 것입니다.

신혜연 컨퍼런스 참여를 제외한 또 다른 혜택들이 있나요?

에드워드 저희 학생위원회에 가입한 학생들은 Cross-Committee internship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Cross-Committee internship을 통하여 학생들은 여러 운영위원회 내의 변호사나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리서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분들과 함께 일대일로 일하게 되고 리서치



66

20~30년 전과 다르게 법은 더 이상 국내에만 국한된 분야가 아닙니다. 21세기에는 여러가지 글로벌 이슈들과 국제무역이 전세계의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성공적인 변호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업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99

프로젝트를 발표할 기회도 주어집니다. 또한 학생들은 매년 2회 출판되는 취업 정보 소식지, 학생 위원회 소식지와 함께 세계변호사협회 여러 운영 위원회의 출판물들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학생 위원회의 소식지에 자신의 프로젝트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는 40개국의 학생들과 자신의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아주 드문 기회입니다.

신혜연 정말 좋은 기회들을 제공하는군요. 학생들에게 혹시 공부에 대한 지원도 해주나요?

에드워드 인권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받고 미국 JD 로스쿨 학생과 함께 e-Learning Course로 세계 인권에 대해서 배울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참여하는데요, 중동부터 세계 여러 분쟁 지역의 학생들도 많이 참여합니다. 각국의 다양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혜연 그렇다면 이제 학생 위원회에서의 본인 경험을 알려주세요.

에드워드 학생 위원회 멤버로서 수많은 IT와 지적 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들, 독점규제 전문 변호사들, 글로벌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들, 그리고 현지 판사들과 만나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학생 위원회 공동의장으로서 홍콩에서 열릴 학생 위원회 컨퍼런스 개최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신혜연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에드워드씨는 무엇을 배웠나요?

에드워드 학생 위원회의 여러 활동들을 통하여 단순히 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넘어서, 국제적인 시야를 통하여 현장에서 적용 및 활용되고 있는

법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로스쿨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경험들을 하게 된거죠.

신혜연 한국 학생들이 왜 세계변호사협회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에드워드 20~30년전과 다르게 법은 더 이상 국내에만 국한된 분야가 아닙니다. 21세기에는 여러가지 글로벌 이슈들과 국제무역이 전세계의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성공적인 변호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업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변호사들이 여러나라의 사법권에 얽혀 있는 사건들을 맡으면서 영국법, 미국법, 중국법, 심지어 한국인에게 생소할 수 있는 이탈리아법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세계의 여러 변호사들이 자국의 법률에 대해서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현 법조계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럴 때에 세계변호사협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변호사가 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세계변호사협회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향후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계변호사협회 학생 위원회 2015년도 제 2차 연례 컨퍼런스, 장소 :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London, UK



신혜연 한국 변호사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한국이 점점 더 세계변호사협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학생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에드워드 네 그렇습니다. 한국 학생들에게 또 알고 싶은 것은 바로 세계변호사협회 아시아 본부가 서울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에 서울에서 '세계변호사협회 총회'가 열릴 예정이며, 이는 6000명이 넘는 전세계의 변호사들이 서울에 모이게 되는 유일무이한 기회인거죠. 2019년이면 현재 한국의 많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법조인이 되었을텐데,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변호사협회 학생 위원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혜연 컨퍼런스 개최로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



에드워드 친(Edward, Chin.)

- Simon Fraser University, 화학과 졸업 /Birbeck, University of London (LLB -법학부) 졸업
- Simon Fraser University, Canadian legal studies (캐나다 법학) 수료
- (현) 런던정치경제대학교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LLM, Corporate and commercial law 재학 중
- Associate member (회원),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 (전) 세계변호사협회 학생 위원회 편집장, 부 위원장
- (현) 세계변호사협회 학생 위원회 공동 위원장

아테네 학당

_ 이상은 하늘에, 현실은 지상에*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 라파엘로(Raffaello Sanzio, 1483-1520) 및 그의 제자들의 작품으로 이루어진 4개의 방이 있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살펴 본 미켈란젤로 기억하시나요? 미켈란젤로는 라파엘로를 엄청 미워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라파엘로가 외모도 잘생겼고 사회성도 좋아서 미켈란젤로가 혼자 꾸역꾸역 그림을 완성시킬 때, 라파엘로는 제자들과 함께 그림을 조직적으로 완성시켰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그러한 성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89세까지 (!!) 장수하였고 라파엘로는 37세에 요절했습니다. 미인박명인데요.

그 4개의 방은 각각 '콘스탄티누스 홀', '엘리오두루스의 방', '세나투라의 방', '보르고의 화재의 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세나투라의 방'은 서명의 방이라고도 불리며 과거 교황들이 서류를 결재하던 곳으로 한때 교회 재판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서명의 방에 바로 라파엘로의 잘 알려진 작품이 있는데 하나는 <성사에 대한 토론(또는 성체논의)> 이고 나머지 하나가 오늘 살펴 볼 <아테네 학당(The School of Athens)>입니다.

이 작품에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은 동시에 한 방에 있을 수 없는 다른 연대의 철학자들인데요. 라파엘로의 역사적 고증을 회화적 상상과 상상으로 치밀하게 배열하여 마치 실제 있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라파엘로는 25세였는데, 파격적 낙하산(?)

이었습니다. 로마 교황 율리우스 2세는 이 성당을 건축하고 이 방에 '신학', '법학', '철학', '시학'의 네 개의 벽화를 그리라고 명했습니다. 그 때까지도 라파엘로는 아버지가 궁중화가였지만 아직 무명이었고 대형 프레스코화를 제작해 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당의 건축가 도나토 브라만테의 추천으로 벽화를 그리게 되어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 <천지창조>를 그리는 미켈란젤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화려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아테네 학당>은 그 중 철학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철학 즉 '인간의 학문' 혹은 '이성의 논리'라는 인간의 정신세계입니다.

이 그림은 1점 소실점에 의한 원근법을 사용하여 가운데로 모아 집니다. 관람자의 눈높이는 벽을 올려다보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림 속의 건축양식은 반원통의 천장과 아치의 연속으로 된 엄숙한 도리아 양식입니다. 그로써 여러 등장인물로 인하여 복잡할 수 있을 그림을 하나로 묶어주고, 웅장한 느낌을 주어 인간적이라기 보다는 초인간적인 것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라파엘로는 이 작품을 위해 많은 스케치를 했다고 해요. 암브로지아나 미술관(Pinacoteca Ambrogiana)에 보관된 최종 밑그림을 보면 그가 피렌체파(Firenze School)의 전통을 충실히 따랐음과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심리 묘사와 미켈란젤로의 육체 표현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운데 1, 2번 인물을 보지요. 1은 플라톤, 2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플라톤은 이상을 꿈꾸므로 손을 하늘로 올리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세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손을 아래



그림출처

<http://www.wga.hu/>

드림프로젝트, 세계명화의 수수께끼, 비채(2006)

김형근 편집위원, '아테네 학당'의 지성인들, 누가 누구인가? (상), (하), 사이언스타임즈

그리스 석학들, 한 폭의 그림에 모여, '아테네 학당' 사람들

박건형 기자, 미켈란젤로는 왜 라파엘로를 죽이고 싶었을까, 서울신문

<http://blog.daum.net/gold9055/15014510>

<http://blog.daum.net/geoaca/11920417>

<http://m.blog.daum.net/purmebirdie/1078422>

<http://visbic.egloos.com/v/4966443>

* 소제목 "이상은 하늘에, 현실은 지상에"는 블로그 <http://pockgun.tistory.com/286> 에서

로 내리고 있습니다. 둘 다 왼손에 책을 들고 있는데 플라톤이 든 책은 저서 티마이오스(Timaeus), 아리스토텔레스가 든 책은 윤리학(Ethica)입니다. 플라톤의 모델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델은 미켈란젤로라고 하네요.

그런데 라파엘로가 그렇게 자신들을 그린 것에 대해 특히 미켈란젤로는 라파엘로를 흉내쟁이이며 모두 자기에게서 기법을 얻어갔다고 폄하했대네요. 앞서 본 것처럼 미켈란젤로는 라파

엘로를 엄청 미워했거든요. 자신의 회고록에서 미켈란젤로 자신이 라파엘로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뻔히 알면서 턱하니 벽화에 자신을 그렸고, 거기다 대놓고 자기의 라이벌인 다빈치를 바로 옆에다 그렸다면 아주 화를 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못생긴 편에 외골수라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았는데 라파엘로는 잘 생겼고 사람들과도 잘 지내서 더욱 싫어했다고 해요.

그 앞에 3번은 디오게네스입니다. 항상 누워서 세상 명예와 부

저자소개



김별다비

경감, 변호사, 큐레이터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미술을 전공하고 쇠대박물관 큐레이터, 아르코 미술관 큐레이터로 근무했다. 제2회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엘지전자 개인정보 compliance task에서 개인정보 보호업무로 3년여 근무하다 예술인의 정의 구현을 위해 수사에 뜻을 두고 2기 경감 특채로 선발됐다. 3회 대법원 가인법정변론대회에서 형사변론 부문 전국우승을 한 바 있다. 대안공간 정다방, 리각 미술관,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미술법을 강의한 적이 있고, 월간 BizArt지와 한국박물관협회지에 미술법 칼럼을 쓰고 있다.



▲ 아테네 학당의 detail

귀를 천시했던 견유학과 디오게네소스를 잘 표현했죠? 그 왼쪽에 4번 네모난 탁자에 턱을 괴고 무언가 쓰는 사람은 '만물은 유전한다'는 명언을 남긴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색에 잠긴 헤라클레이토스도 미켈란젤로의 얼굴인데요. 이 부분은 완성 후 1년 뒤에 추가된 것으로 라이벌에 대한 경의의 표시라네요.

그 왼쪽 5번 노란 옷에 왼쪽으로 상체를 틀어 보고 있는 사람은 '존재하는 것만이 있으며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한 파르메니데스입니다. 그는 그리스 식민지 엘레이에서 태어나 엘레이 학파의 창시자로 진리의 가르침과 역측의 가르침을 구별하여 헤라클레이토스와 그 후계자들의 자연발생적 변증법을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헤라클레이토스를 쳐다보지 않고 뒤로 틀어 반대하고 있도록 표현했나봐요.

파르메니데스 왼쪽 6번은 여성 수학자 히파티아라고 하는데요. 이집트 신플라톤파의 대표철학자로 알렉산드리아 사람 천문학자 테온의 딸입니다. 그녀는 유창한 강의 능력으로 명성을 떨쳤고 수학에 매료되어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학자들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그녀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강의를 하는 그녀를 이교의 선포자라 하여 키릴루스 대주교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키릴루스에서는 당시 과학자, 철학자, 수학자를 모두 이교도로 단정하였으며, 사람들은 그녀를

마차에서 끌어내 옷을 모두 벗겨 교회로 끌고가 살해하고 조각내 불태웠다고 합니다. 수학자로서 저서가 전해지지 않아 정확히 어떤 내용을 연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외모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프톨레마이오스의 주교가 된 시네시오스가 그녀의 제자라고 하네요, 그런데 히파티아가 옷과 몸에 비해 얼굴이 작아도 너무 이상하게 작지 않나요? 그 이유는 이 벽화를 의뢰하고 보수를 주는 후원자가 히파티아를 크게 그리면 돈을 적게 주겠다고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앞에 7번 수영은 있지만 가운데 머리가 부족한 분이 있죠? 책에 무언가 쓰고 있네요. 그는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가 책에 적고 있는 것은 디아테세론*입니다.

* 디아테세론(Diatessaron): 옥타브 음계나 이중 옥타브 음계를 이루는 주요 구성단위는 4음음계(tetrachord)로서 이것은 다이어테서런(diatessaron) 혹은 4도 내에 펼쳐져 있는 네 개의 음으로 만들어진 것. 일설에 의하면 피타고라스가 소리나는 현을 분할하다가 단순한 비율로 이루어진 협화음을 발견해 내었다고 함.

그리고 그 앞에 8번 흑관을 들어 보여주는 사람은 아낙사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에게 마치 이것도 풀어보라고 하는 것 같네요. 아낙사고라스는 어린이를 너무나 좋아해서 '내가 죽은 후에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죽은 달 한 달간은 어린이들을 부모 간섭 없이 맘껏 놀게만 해달라'고 유언했

다고 해요. 그 왼쪽에 9번 머리에 터번을 쓰고 목을 쪽 빼고 쳐다보는 사람은 단일지성론을 주장한 이슬람 철학자 아베 로에즈(이븐 루시디)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아랍어로 번역해 이슬람에 소개했죠.

피타고라스 왼쪽에 웅크리고 흰 종이에 무언가 메모하고 있는 노인 10번은 해시계를 발명한 아낙사만드로스입니다.

그 왼쪽 뒤를 돌아보고 검은 판에 무언가를 쓰고 있으며 머리에는 월계수 잎으로 만든 월계관을 쓴 11번은 원자론을 주장한 데모크리토스입니다. 그 왼쪽에 아기를 안고 있는 초록 모자를 쓴 노인 12번은 로스쿨 학생이라면 누구나 아는 제논입니다. 리트 시험을 보려면 제논의 변증법을 모를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 모든 철학자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는 어디 있을까요? 오히려 그림의 중앙이 아닌 왼쪽에 초록색 옷을 입은 13번이 있습니다. 그가 소크라테스이고요. 소크라테스 오른쪽에 14번인 흰 옷을 입고 팔짱을 낀 사람은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 들어간 군인 크세노크라테스입니다. 나중에 아카데미아 3대 학원장이 되었죠. 소크라테스 왼쪽 15번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생각보다 꽤 동안이네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이미 너무나 지루한 표정으로 듣고 있는데도 소크라테스는 열정적으로 뭔가 이야기 하고 있지요. 그 왼쪽으로 16번은 투구를 쓰고 군복을 입고 있는데 알키비아데스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절친이라고 해요. 알키비아데스의 왼쪽에 팔을 왼쪽으로 뻗고 있는 사람 17번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아이스키네스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재판에도 있었고,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도 곁에 있었으며 시신을 수습한 사람입니다. 알키비아데스의 오른쪽으로 18번 검은색의 몸통에 흰창을 가진 모자를 쓴 남자는 향연의 저자 크세노폰입니다. 향연은 소크라테스가 지은 것 아니냐고요? 향연은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제자가 적은 책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저서가 없었죠.

위 왼쪽 구석에 상체를 벗은 19번이 디아고라스로 그리스 신들을 조롱하여 기독교에서 좋아하는 철학자입니다. 디아고라스 옆 20번은 크리티아스입니다. 플라톤의 외당숙이라고 하고, 크리티아스는 플라톤의 저서 이름이기도 해요. 이 책에서 유명

한 아틀란티스 대륙이 언급되었어요. 다들 그리스 소피스트 학파 철학자입니다.

이번엔 그림의 우측으로 가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 오른쪽에 사람들 무리 중 한 가운데의 노란옷을 입은 대머리 남자 21번이 있지요?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중 하나로 식물학자 테오프라토스입니다. 그 오른쪽 아래 곱슬머리의 뒷통수만 보이는 초록옷을 입은 22번 남자는 에피쿠로스학파의 창시자인 에피쿠로스, 그 오른쪽으로 푸른 옷을 입고 뒤돌아 보는 23번 남자는 키레네 출신으로 훗날 키레네 학파를 창시한 아리스토포스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개개의 쾌락이며 육체적 쾌락이 정신적 쾌락보다 우위에 있다'는 말을 했대요. 멋지네요.

이제 그림의 오른쪽 맨 아래 구석으로 가 봅시다. 허리를 굽혀 붉은 천을 두르고 흑관에 콤파스를 대고 있는 24번 남자는 유클리드입니다. 유클리드 기하학 아시죠? 유클리드 뒤에 25번 별을 그린 동그란 구를 든 흰 옷 입은 남자는 머리에 양머리를 했네요? 그는 조로아스터(짜라투스트라)입니다. 조로아스터? 조로아스터교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가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해요. 그 앞에 26번 뒷모습을 보이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지구를 든 사람은 천동설을 주장한 프톨레마이오스이고요. 그 오른쪽 흰옷에 흰색 빵모자를 쓴 27번이 화가 소도마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라파엘로의 친구죠. 뒷편 붉은 망토에 혼자 서있는 28번 인물이 신플라톤주의의 범신론적 철학자 플로티노스이고, 프톨레마이오스와 소도마 사이의 검은 모자를 쓰고 얼굴만 보이는 사람 29번은 그리스 화가 아펠레스인데요, 모델은 바로 라파엘로 자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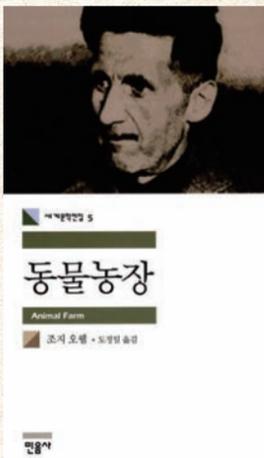
그런데 그림 속에는 총 54명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번호가 없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렇게 아직도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려졌어도 논란중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노력했지만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고 추정만 할 뿐입니다. 라파엘로만이 답을 알겠지만 밝힌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자료에서는 중심인물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좌우의 작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사포'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1번이 플라톤이 아니고 3번 디오게네스가 바로 플라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창**

동물농장으로 읽은 법조인의 역할

때로 소설은 동물들의 이야기를 빌려 비뚤어진 인간 세상을 조롱하기도 한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단 한 명의 농장주인 인간 존스에게 착취와 억압당한 동물들이, 존스를 농장에서 내쫓아 낸 후 벌어지는 동물 세계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혁명을 도모했던 동물들의 세계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불평등이 더욱 극대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소설은 메이저의 유언으로 시작된다. 그는 모든 동물에게 존경받는 돼지다. 메이저는 지금까지 농장동물들이 온갖 최선을 다해 일했지만 최저 수준의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일해 얻은 대부분의 생산물이 농장 주인 존스에게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중국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도축장에 끌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알려준다. 그가 보기에 인간은 동물의 유일한 적이며 동물은 동지다. 따라서 인간만 추방하면 모든 불평등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동물들에게 단결하여 존스를 쫓아내자고 이야기한다. 그는 자신이 꾸 이상한 꿈속의 노래 “영국의 동물들”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인간의 덕목과 풍습을 따라하거나 인간을 닮아가는 행동을 절대 금하라고 당부한다.

6월 어느 일요일, 주인이 식량을 배급하지 않아 굶주린 동물들은 곳간의 음식을 먹다 들켜 이를 제지하는 존스와 맞닥뜨리게 되는데 결국 기습공격하여 그를 농장에서 쫓아낸다. 인간을 내모는데 주동자가 된 것은 돼지 나폴레옹과 스노우볼이었다. 스노우볼은 농장입구에 동물농장 팻말을 건다. 그리고 동물농장의 7계명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1. 두 다리로 걷는 자는 누구든지 적이다. 2. 네 다리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자는 모두 우리의 친구다. 3.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4.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 5. 어떤 동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6.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7.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인간을 추방시킨 농장에서 동물들은 인간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다. 그리고 동물사회에



는 한동안 평화와 평등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잠깐. 곧 특권층이 형성된다. 인간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던 돼지들은 다른 동물의 리더가 된다. 돼지들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 많은 우유와 사과를 가져갔는데 자신들의 두뇌 활동을 통해 농장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한다. 동물농장을 되찾으려고 돌아온 주인 존스를 몰아내는데, 이른바 외양간전투의 공을 세운 스노우볼과 평소 농장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동물로 존경받는 복서는 훈장을 받게 된다.

그런데 돼지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은 사사건건 격렬한 논쟁을 벌인다. 스노우볼이 연구하고 개발한 정책들은 늘 나폴레옹의 반대에 부딪힌다. 스노우볼은 존스가 두고 간 「가정백과」, 「벽돌쌓기는 누구냐」, 「진기학 입문」을 활용하여 풍차를 만들고 배수로를 뚫고 전기기계를 생산하는 농업정책을 동물들에게 소개하지만 나폴레옹은 자신의 주도권이 빼앗길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사사건건 반대한다. 결국 나폴레옹은 자신의 호위병인 개 세 마리를 이용하여 스노우볼을 농장에서 사라지게 만든다.

이후 나폴레옹의 전체정치가 개막된다. 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토론과 대화는 더 이상 없다. 그의 말이 곧 법이다. 스키퍼는 나폴레옹을 향한 복종과 충성만이 존스의 공격에서 농장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설득한다. 복서도 여기에 동의한다. 그는 평소 자신의 좌우명인 “항상 열심히 일한다”에 “나폴레옹은 항상 옳다.”는 격언을 추가한다. 풍차계획을 반대하던 나폴레옹은 원래 그 계획은 자신이 정한 것이라며 풍차 건설을 다시 시작한다.

풍차건설을 시작하면서 동물들은 노예로 전락한다. 어느새 인간과 동물의 갈등은 동물과 동물의 갈등으로 전이된다. 주 80시간 근로에 일요일 오후도 근로시간이 된다. 풍차를 세우려면 채석장의 돌을 쪼개야 하는데 죽을힘을 다해야 한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비 오듯 땀을 흘리며 가파른 절벽에서 내려오는 돌을 온몸으로 받아낸다.

저자소개



박상흠 변호사
동아대학교 법무팀장

동아대 로스쿨 재학시절 편집장을 맡은 일을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한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신체특성 때문에 변호사로서의 영업은 쟁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글쓰는 일과 쉽게 설명하는 법률이야기를 일반인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가장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점차 나의 꿈은 법률이야기꾼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농장에 갑자기 부족 현상이 찾아온다. 종자, 석유, 말발굽 등. 나폴레옹은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상업을 하지 않겠다는 농장의 규칙을 버리고, 이웃농장과의 상거래를 할 것을 선포하고 이를 위해 워퍼변호사를 중개인으로 이용한다. 지도자 돼지들은 한적한 장소가 필요하므로 농장 집을 사용하며 침대위에 잠을 자야 한다고 설명한다.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요를 덮고 자서는 안 된다”는 7계명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무리엘의 질문에 스킨러는 “침대에 자는 것은 괜찮지만 요를 덮는 게 안 된다”는 의미라고 유권해석을 한다.

갑자기 밀어닥친 폭풍으로 풍차는 파괴되고 굶주림이 이어지자 위기감을 느낀 나폴레옹은 농장을 향해서는 농장을 도탄으로 빠뜨리도록 꾸민 자는 모두 스노우볼이라고 속이고 농장 밖으로는 워퍼변호사를 이용해 농장이 풍요롭다고 거짓선전을 한다. 나폴레옹은 농장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동물을 강제로 동원하여 농장을 위기로 빠뜨린 이는 바로 스노우볼이라고 말하게 만든다. 모든 것이 의아한 복서는 농장이 이상하게 변한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자신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한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15명의 사람들이 농장을 습격한다. 맞서 싸우던 복서의 말발굽에 총탄이 십여 발 박히고, 죽음을 무릅쓴 동물들의 저항으로 풍차전투는 힘겨운 승리로 끝난다. 이후 “영국동물들” 노래는 “나폴레옹 찬양가”로 바뀌고 단독 후보로 출마한 그는 대통령이 된다.

나폴레옹의 집권과 함께 7계명은 모두 바뀐다. “어떤 동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어떤 동물도 지나치게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로 “두 다리는 나쁘고 내 다리는 좋다”던 구호는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더욱 좋다”는 구호로 둔갑을 하고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가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더욱 평등하다”로 바뀐다. 그리고 그는 농장에 위기가 올 때마다 자신만이 인간으로부터 농장을 지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라고 강조한다.

아 불쌍한 복서. 풍차 건설을 위해 채석장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던 그가 쓰러졌다. 그의 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린다. 나폴레옹의 대변인 스킨러가 그를 병원으로 인도해 치료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복서는 마차에 실려 도살장에 팔려가는 비극을 맞이한다.

그리고 계속되는 나폴레옹의 폭정. 그의 집권으로 동물들은 더욱 곤핍해졌고 굶주림에 허덕였다. 자유는 실종되고 불공평은 더욱 확대되었다. 누가 돼지인지 누가 인간인지 모르겠다는 언급으로 소설은 끝을 맺는다. 인간이 사라진 동물 공화국은 나폴레옹 독재국으로 변질되는데 전제국의 통치는 중단되지 않는다. 조지 오웰은 동물농장을 통해 자본주의의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건립된 공산주의 국가가 평등사회를 가장하여 인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독재국가로 변질된 모순적 상황을 고발하고 싶었다.



소설은 우리에게 몇 가지 의문점을 던진다. 첫째, 나폴레옹과 스노우볼의 경쟁에서 스노우볼은 왜 이기지 못했을까. 둘째, 농장이 궁핍해 질수록 강화되는 나폴레옹의 독재에 저항하지 못하고 오히려 독재자의 미화에 계속 속는 동물들의 연약함이 우리 속에도 숨 쉬고 있지 않을까. 셋째, 권력을 위해 7계명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처럼 인간 사회의 법률도 특권층을 이익만을 위해 개정되는 일은 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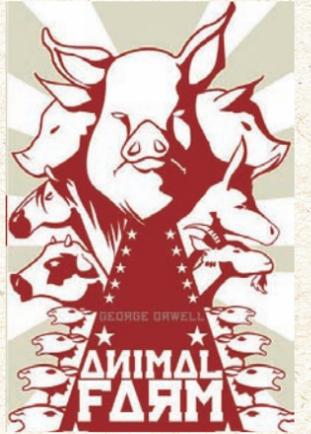
돼지들은 동물농장을 읽으며 복서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농장에서 가장 힘이 셨던 그는 풍차 건설을 위해 온몸을 던져 일하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농장을 방어하는데 혼신을 기울였다. 채석장에 쓰러진 복서를 일으킨 간신배 스킨러는 병원에 치료받게 하겠다는 말과 달리 그를 도살장에 팔아 죽인다.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자가 공산주의 사회를 고발하려 했던 의도와 달리 나는 다른 각도에서 소설을 독해하고 싶다. 왜 동물들은 스노우볼을 지지할 수 없었을까. 독재자의 미화에 속을 수밖에 없었을까. 마구잡이로 7계명이 바뀌는데 왜 항의하지 못하였을까. 빈약한 지식과 사회의식을 가진 국민들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돌리고 싶다. 어떤 사회건 깨어있는 지식인이 소진되고 정확한 통찰력을 가진 건강한 중산층이 사라질 때 건강한 사회가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분별력 있는 판단은 실종되고, 지도층에 모든 것을 맡겨버린 채 그들의 언동에 세뇌된 이들로 가득하게 될 때 동물농장의 재현을 막는 것은 어렵게 된다.

이같은 공해를 막는데 있어서 법조인의 역할은 막중하다. 동물 공화국의 출현과 함께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7계명은 독재자의 구미에 맞도록 쉽게 변경되었다. 법 제정과 개정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본연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감시, 감독하는 일을 해야 하는 이들은 바로 법조인들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해야 할 필요도 있거니와 법의 존재 목적이 인간을 위해 봉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 개인을 위해, 특정 계층의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입법은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고 오염을 발생시키고 만다.

충직했던 복서. 그러나 건강한 사회의식이 없어 독재자의 말을 맹종했기에 결국 자기도탄에 빠진다. 복서에게는 통찰력과 분별력 그리고 건강한 권리의식이 부족했다. 우리 시대의 건강한 복서들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조인들의 도움이 절박하다. 복서들에게 그들이 가진 권리를 알려주고, 그들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중대한 권익에 관한 사항이 어떤 협의절차와 설명도 없이 쉽게 바뀌고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불행한 복서가 이 시대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다. 로스쿨러의 출현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이다. **창**



툭아보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탈옥’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사회적 용어이고, 법률용어로는 ‘도주(逃走)’라 한다. 탈주범에게는 ‘도주죄’가 적용되는데, 도주죄란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하거나, 구금 중 잠시 해금된 자가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 또는 구금된 자를 도주 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editor. 박소희

[어학사전] '툭아보기'는 '살살이 툭아가면서 살피보다'라는 순 우리말로, 틈이 있는 곳마다 모조리 뒤지면서 찾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탈옥’을 모티프로 한 작품

쇼생크탈출 *The Shawshank Redem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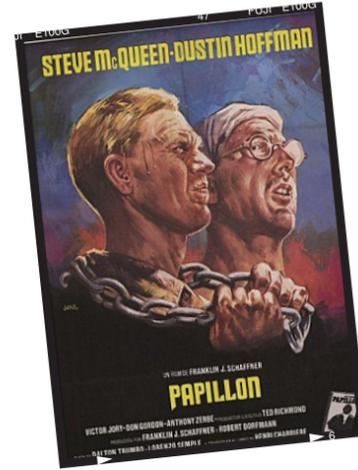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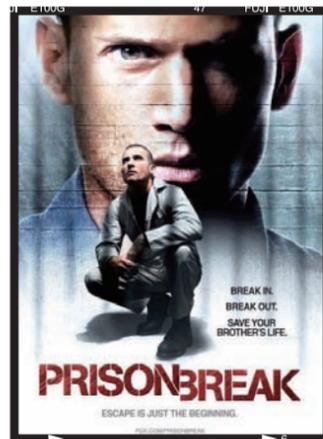
주인공 앤디 두프레인(팀 로빈슨)은 유능한 은행원으로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정부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중신형을 언도 받아 쇼생크 교도소에 오게 된다. 앤디가 쇼생크에 들어가기 전부터 수십 년간 복역 중인 죄수 레드(모건 프리먼 역)는 이미 교도소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인물이며, 앤디를 이해하는 유일한 인물이다. 2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앤디는 교도소의 체제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된다. 그는 금융에 관한 지식으로 세금계산을 해주고 사업적 거래들을 처리해줌으로써 소장과 간수들의 존경을 얻게 되지만 자유에 대한 바람은 결코 버릴 수 없다.

[관련포인트] 개봉 당시에는 적자를 겨우 면했을 정도로 폭망했지만, 뒤늦게 관객과 비평가들에게 찬사를 받은 작품. 잔잔한 두 남자의 우정이 인상적이다. (미국영화 / 1994 / 142분)

프리즌 브레이크 *Prison Break*

천재 건축설계사인 스코필드(웬트워스 밀러)는 부통령 동생을 살해했다는 1급 살인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형 린킨 버로우(도미니크 퍼셀)를 구하기 위해 폭스 교도소에 들어간다. 교도소의 설계도 및 각종 탈옥정보를 온몸에 문신으로 새긴 후, 일부로 범죄를 저질러 기어이 감옥에 들어가는 패기를 보여준 스코필드,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담성, 천재적인 직관력으로 엄중한 경비와 거대한 음모를 뚫고 탈옥을 시도한다.

[관련포인트] 인기 미드 '24' 시즌 사이에 단편으로 편성된 작품인데, 예상 외로 인기가 너무 좋아 시즌으로 제작돼 대박 터뜨린 케이스. 전세계에 '석호필' 열풍을 일으켰다. 7년 만에 시즌5 방영을 앞두고 있다. (미국드라마 / 2005 / 22부작)



빠빠용 *Papill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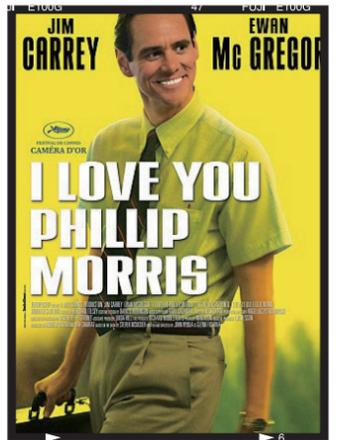
프랑스령인 적도 부근 기아나로 향하던 죄수 수송선에서 빠빠용(스티브 맥퀸)과 드가(더스틴 호프만)는 서로 만난다. 빠빠용은 무죄지만 살인죄로 그리고 드가는 위조 지폐범으로 수감됐다. 빠빠용은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붙인 검사에 대한 복수를 위해, 드가는 아내에게 당한 배신 때문에 탈옥을 결심한다. 그러나 첫 번째 탈옥에서 이들은 실패했고, 무시무시한 독방에서 2년을 보내게 된다. 빠빠용은 다시 탈주를 시도하여 겨우 콜롬비아에 도착하여 지내다가 수도원의 원장에게 속아 다시 세인트 조셉프의 독방에서 5년을 보내게 된다. 이런 중에도 드가의 우정만이 빠빠용에게 용기를 준다.

[관련 포인트] 빠빠용이 아무도 살아나오지 못한다는 독방에서 지내와 비퀴벌레를 잡아먹으며 그토록 갈망하던 것은 '자유', 그리고 '희망' (미국, 프랑스 영화 / 1974 / 150분)

필립모리스 *I Love You Phillip Morris*

자상한 남편이자, 좋은 아빠, 성실한 경찰이었던 스티븐 러셀(짐 캐리). 그는 게이로 이중생활을 하는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왔지만,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죽다 살아난 이후에 마음가는대로 다 하며 살기로 결심한다. 커밍아웃과 함께 하지만 럭셔리한 삶을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바로 돈! 결국 스티븐은 천재적인 두뇌로 보험사기, 카드사기, 식품사기 등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감옥에 들어간다. 거기서 운명적인 사랑(?) 필립 모리스(이완 맥그리거)를 만나게 되고, 이번엔 그와 함께 하고자 7전8기 탈옥사기에 도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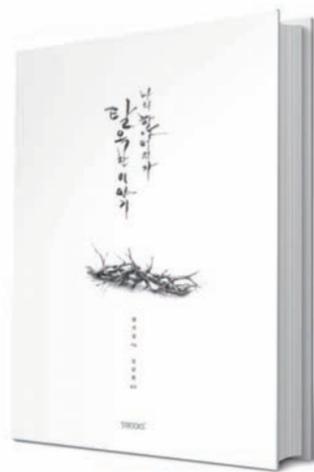
[관련 포인트] 유쾌한 코미디 영화를 기대했다면, 포스터에 낯익 거라고 살며시 말해주고 싶다. 끝까지 보고 나면 마음이 먹먹해지는 맵쌀 영화. (프랑스 영화 / 2009 / 97분)



나의 할아버지가 탈옥한 이야기 *The Criminal Lu Yanshi*

중국의 저명한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옌거링 소설 『나의 할아버지가 탈옥한 이야기』는 루옌스가 14살이었던 1921년부터 1990년까지 긴 일대기를 섬세하게 그려내 마치 중국 근대사의 한 복판에 와 있는 착각마저 준다. 개인은 어쩔 수 없이 정부와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루옌스처럼 유복한 가정의 모던보이에서 탈옥수로 변하듯,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할 수도 있다. 주인공 루옌스는 신문물, 특히 서양의 문화에 눈을 떠 미국으로 유학까지 다녀온 인물이다. 그랬던 그를 정부는 '사상개조'란 명목으로 '반혁명분자'로 규정짓고 사회 밖으로 내던져버린다. 그리고 근근이 옥살이를 하며 지내다 탈옥을 결심하여 아내와 가정으로 돌아오길 처절하게 갈망한다.

[관련포인트] 2014년 개봉한 장이머우 감독의 <5일의 마중>은 바로 이 소설을 원작으로 했다. 600페이지가 넘는 두께지만, 잔잔한 울림 덕에 끝까지 읽을 수 있다. (중국 소설 / 2015 / P619)



공연 문화가 발달하면서, 공연 관람 방해와 관련된 신조어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다른 관객으로 인해 관람을 방해받는 일을 총칭하는 '관크'(관객 크리티컬), 좌석에 수그린 채 앉아 뒷사람의 시야를 방해하는 행위나 사람을 뜻하는 '수구리', 공연 중 휴대전화 불빛으로 관람을 방해하는 '반딧불' 등이 그 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휴대전화 벨소리(1위), 움직이거나 앞좌석을 발로 참(2위), 옆 사람과의 대화소리(3위)가 공연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로 꼽혔다. 함께 관람하는 관객들을 위해 작은 배려가 필요한 순간이다.



전시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전시기간 2016-04-30(토) ~ 2016-08-15(월)
관람료 일반 1만 3천원, 청소년 1만원
홈페이지 <http://sema.seoul.go.kr/>

스케치에서 스크린으로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특별전

서울미술관은 드림웍스애니메이션(DreamWorks Animation), 호주영상센터(the Australian Centre for the Moving Image)와 함께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특별전: 스케치에서 스크린으로>를 개최한다. 전시는 "스케치에서 스크린으로(Journey from Sketch to Screen)"라는 부제처럼 초기의 아이디어가 한편의 애니메이션으로 완성되는 수많은 과정을 캐릭터, 스토리, 월드 세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보여준다. 작품별 '캐릭터'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역경을 극복하는 '스토리'를 통해 재미와 감동을 더하며, 이들이 살아 숨쉬는 '월드'를 구축한다. <슈렉>, <마다가스카>, <쿵푸팬더>, <드래곤 길들이기>와 같은 주요작품을 포함한 32편의 애니메이션을 총망라한 이번 전시는 <쿵푸팬더3> 관련 작품을 최초로 공개한다.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Musical

파격과 감동의 깊은 울림!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프랑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가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에서 3년 만에 한국어 라이선스 공연으로 펼쳐진다.

프랑스 대 문호 빅토르 위고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네 남녀의 거부할 수 없는 숙명적인 사랑을 그린 <노트르담 드 파리>는 단순히 뮤지컬을 넘어서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3년 만에 돌아오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캐스팅으로 관객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흥광호와 케이윌을 비롯해 노트르담 드 파리를 대표하는 윤공주, 마이클리, 서범석, 최민철, 문종원을 필두로 이번 시즌을 통해 새롭게 합류하는 전나영, 김다현, 오종혁, 이충주, 박송권, 김금나 등 작품의 명성을 이어갈 최고의 배우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공연장소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공연기간 2016-06-17(금) ~ 2016-08-21(일)
관람료 VIP석 14만원, OP석 13만원, R석 12만원
홈페이지 www.mastent.co.kr

play-acting

이해랑 탄생 100주년 기념 공연 햄릿



공연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공연기간 2016-07-12(화) ~ 2016-08-07(일)
관람료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홈페이지 <http://www.iseensee.com/>

신시컴퍼니와 국립극장은 한국 연극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이해랑 선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연극 <햄릿>을 공동 제작한다.故이해랑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공연에 함께할 이들은 연출 손진책, 무대 디자이너 박동우, 프로듀서 박명성을 비롯해 배우 권성덕, 전무송, 박정자, 손숙, 정동환, 김성녀, 유인촌, 윤석화, 손봉숙이다. 연극 <햄릿>의 출연 배우는 단 9명으로, 주·조연과 앙상블이 대거 필요한 공연이지만 거의 모든 배우들이 1인 다역은 물론, 성별에 관계없이 배역을 소화하며 연기력과 발성으로 진정한 배우의 '연극'을 보여줄 예정이다. <햄릿>은 셰익스피어 작품 중 가장 긴 희곡으로 뽑히지만, 이번 공연은 시적인 미니멀리즘을 통해 밀도를 높일 예정이다.

백년의 신화

이중섭 탄생 100주년展

국립현대미술관은 올해 이중섭(1916-56)의 탄생 100년, 작고 60년을 기념하여 미술관 역사상 최초로 이중섭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중섭은 명실상부한 한국의 국민작가로 1970년대 이후 일종의 '붐'이라고 할 만큼 폭발적인 대중적 사랑을 받아왔다. 이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그의 탄생 100주년을 계기로 산발적으로 보존되고 있는 이중섭의 원작을 최대한 한 자리에 모아서, 이를 대중들이 감상하고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중섭의 은지화 3점을 소장하고 있는 뉴욕근대미술관(MoMA)을 비롯하여 총 55개 소장처로부터 200여점의 작품, 50여점의 자료를 대여하였다. <황소>, <통영 풍경>, <길 떠나는 가족> 등 그의 대표적인 유화 60점 외에 드로잉, 은지화, 엽서화, 편지화, 유품 및 자료 등이 총망라되었다.



전시장소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전시기간 2016-06-03(금) ~ 2016-10-03(월)
관람료 개인 7천원 (덕수궁입장료 포함)
홈페이지 www.jungseob.com

LAWSCHOOL NEWS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36차 총회 개최

지난 5월 13일(금)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36차 총회>가 열렸다. 25개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모인 가운데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교육부 입학실태조사 결과 발표 등 그동안의 업무 보고를 비롯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임원 선출이 진행됐다. 이형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인과 감사 2인이 새롭게 선출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임 임원



이사장 한양대학교
이형규 원장



부이사장 인하대학교
김인재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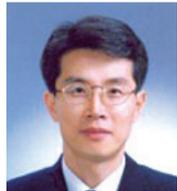
부이사장 제주대학교
김상찬 원장



이사 동아대학교
이혜진 원장



이사 서강대학교
이상복 원장



이사 서울대학교
조흥식 원장



이사 서울시립대학교
경건 원장



이사 연세대학교
김정오 원장



이사 전북대학교
김동근 원장



감사 경희대학교
오준근 원장



감사 부산대학교
차정인 원장

LAWSCHOOL NEWS



법원도서관·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간담회 개최

5월 26일(목) 법원도서관(서초동 소재)은 법원도서관·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법원도서관과 가진 첫 번째 간담회로, '법률정보검색대회' 운영 및 법률정보 제공,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자 마련됐다. 김기정 법원도서관장과 법전원 원장 및 법학도서관장들의 접견을 시작으로, 청사 견학을 비롯해 법원도서관 주요사업 안내와 회의가 이어졌다. '법률정보검색대회'는 올 7월 법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제35차 이사회 및 현안논의 원장단 간담회 개최

6월 9일(목)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제35차 이사회 및 현안논의를 위한 원장단 간담회가 열렸다. 이사회에서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과 입학전형 제도개선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법전원협의회 특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다. <법전원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김정오 원장(연세대) 외 6명으로 구성됐으며, <법전원 교육발전 특별위원회>는 오준근 원장(경희대) 외 6명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법전원 입학, 강의, 졸업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전원 고충처리위원회>도 구성됐으며, 이상복 원장(서강대)이 위원장을 맡았다. 이어진 원장단 간담회에는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포함한 25개 법전원장이 참석했으며, 전임 이사장(오수근 이화여자대학교 원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이 이루어졌다.

법학전문대학원 신임 원장



홍석모 원장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공 : 국제거래법,
국제사법



권오걸 원장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공 : 형사법



조흥식 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공 : 환경법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나갈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